

학생이 말하는 학교 그리고 우리동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기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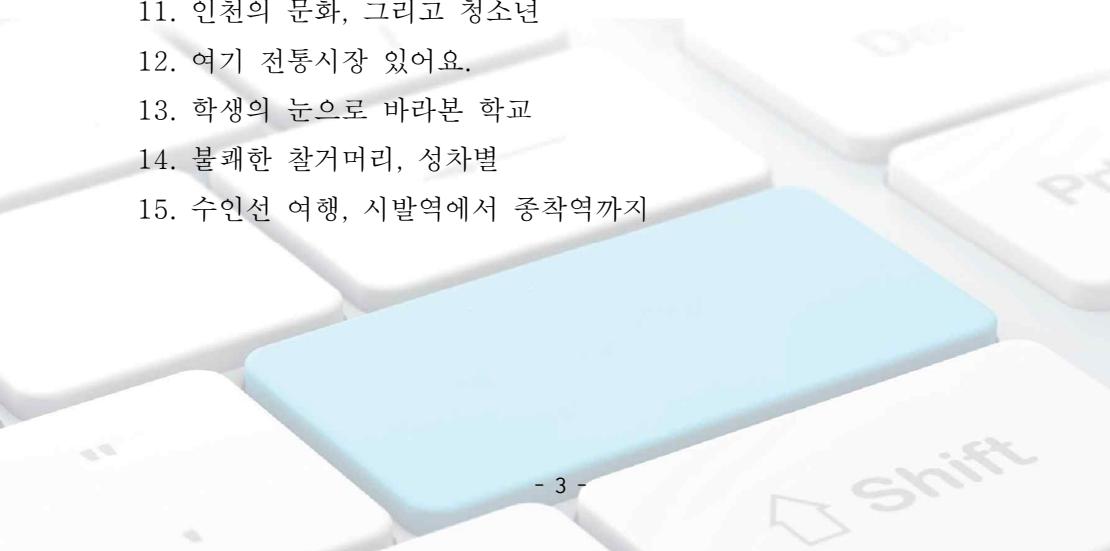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김문곤
편집 인쇄: 중앙프린텍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18-139



Contents

1. 인천을 맛보다. – 맛집 기행
2. 우리 학교만의 특색 활동을 자랑하자~
3.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IGC에 가다.
4. 인천의 역사탐방 – 소래역사관에 가다
5. “정말 단정하고 예쁜가요?”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복
6. 2018 다함께 돌자 인천 박물관 한바퀴!
7. 우리가 보는 페미니즘
8. 인천 국제 공항 살펴보기
9. 27년째 계속된 정기 수요집회 속 ‘청소년의 외침을 만나다.’
10. 꿈나무들, 성장을 위한 취미란 날개짓을 하다.
11. 인천의 문화, 그리고 청소년
12. 여기 전통시장 있어요.
13.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
14. 불쾌한 찰거머리, 성차별
15. 수인선 여행,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인천을 맛보다. – 맛집 기행

부평고등학교 모준형
송덕여자고등학교 이영서
인천고등학교 김가영
인일여자고등학교 서지현
박문여자고등학교 송명진
부광고등학교 정세현
인천고등학교 최원석

‘인천’ 그리고 ‘맛집’이 단어는 어쩌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 단어이다. 하지만 여기, 마치 자신들은 환상의 파트너라고 말하는 듯 인천을 대표하는 맛집들이 있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처음의 맛 그대로를 내며 사랑받는 식당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까지 다양한 종류의 맛집들, 어쩌면 사람들에게 익숙한, 또 어쩌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골목길 속 맛집들을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자.

■ 35년의 세월을 담은 정성의 맛 골목식당? 골목 맛집!



동인천 인근 신포시장에 위치한 “신포 닭강정”은 시장을 대표하는 맛집으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이곳은 대표 음식인 닭강정을 필두로 변치 않는 맛을 통해

끓이지 않는 단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사람들로 인해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기다림 끝에 끓이지 않는 인기의 비결을 만날 수 있었다.

■ “이 가게는 저에게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 이구요.”

Q. 주로 판매되는 품목은 무엇이신가요?

A. 저희는 주로 후라이드와 닭강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둘 중에서는 역시 닭강정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Q. 신포시장에서 얼마나 장사를 하셨나요?

A. 8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간판에는 85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8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Q.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신포시장을 배경으로 방송을 한 이후로,
가게 손님에 영향이 있으셨나요?

A. 저희 가게는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 가게에 오셔서 골목식당에 방영된 가게가 어디인지는 종종 물어보시더라고요.

Q. “신포 닭강정”이라는 간판을 빛낼만한 특징, 혹은 차별화 전략이 있으신가요?

A. 저희가 일단 원조이기도 하기에 다른 집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면 저희만의 비법을 통해 조금 더 바삭하게 튀기므로 시간이 지나도 뉙눅해지지 않고, 또 소스에 들어가는 고추기름 또한 특이하게 내서 매콤 달콤하고 바삭한게 우리 특징입니다.

Q. 84년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35년간 장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A. 장사의 기본인 ‘초심’에 가장 초점을 둔 것 같아요. 항상 음식장사는 맛은 기본이고 청결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친절하고, 또 좋은 재료를 써야죠. 그리고 가격 대비 양도 많이 주죠.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들어야 비로소 “좋은 집이다.”라는 말에 걸맞는 식당이 되는 거죠.

Q.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A. 지금까지 정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사실 손님을 기억에 남긴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 집을 찾아와 주시는 골수 단골손님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Q. 이 식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식당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A. 항상 변함 없는 집, 닭튀김 잘하는 집, 틀림 없는 선택으로 꼽힐 수 있는 집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남고 싶습니다.

■ “뭐든 즐겁게! 내가 왕이라면 손님은 황제다!”



남인천 주안동의 맛집 “청실홍실”은 이미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은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 메뉴인 만두와 메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특별한 두 맛의 조합으로 사람들의 입맛 사냥을 성공하였다.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식당의 영업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 쯤, 가까스로 사장님을 만나 뵈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 “가격 인상이요? 에이, 이분 장사할 줄 모르시네.”

Q. 거의 마감 시간에 가까운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꽤 있는데,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나요?

A. 이런 말 하기 쑥스럽긴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7월에는 메밀과 만두를 1500판 정도 팔은 것 같네요. 제가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중의 70% 이상이 단골손님들이라는 것이에요.

Q. 손님의 70% 이상이 단골손님들이라면 재방문율이 정말 높다는 말인데, 사장님의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일단 제일 중요한 맛이 있으니 그런 것이겠죠. 제 스스로 저희 집 음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맛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 이외의 요소를 꼽자면 역시 친절이죠. 제가 천성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좋아하다보니 처음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스스럼없이 대화를 하면서 친해지고, 그렇게 단골이 하나둘 쌓이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집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골손님들과 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각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어쩔 때에는 단골손님들께서 아기 옷이나 텁 같은 걸 주신다니까요.

Q. 그렇다면 손님들과의 갈등은 거의 없으신 건가요?

A.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손님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전부 다 좋은 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끔 흔히 “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손님들이 찾아오시긴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좋은 손님들이 저희 직원들을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고맙고 또 미안하죠.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남는 건 손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님들에게 더 잘 해주게 되는 거죠.

Q. 손님들과의 갈등 외에도 다른 갈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은 있으신가요?

A. 물론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주변 가게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주변 가게의 견제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웃으며 일을 해결하곤 하죠.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의 어려움인 재료값 상승도 어려움 중에 하나죠. 최근에는 폭염으로 채소 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죠. 그래도 저희가 그간 해온 짬이랑 손님들과의 의리가 있지, 여기서 가격을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 돈 조금 못 벌더라도 단골손님 한 분 더 생기는 게 더 기분 좋잖아요.

Q. 얼핏 보기에도 직원 분들이 많아 보이시는데, 직원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 저희 가게엔 우선순 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음식의 맛과 친절함, 두 번째가 소중한 손님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직원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잘 챙기면 저는 음식 장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에게도 정말 잘 해주려고 노력하죠. 실제로 회식도 자주 하고 팀워크를 위해 서로 으쌰으쌰 하죠. 저희 직원들이 하나같이 전부 최소 5년 이상씩들 우리 가게에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 개인이 서운한 점이 있을 때에 서로 잘 얘기하여 그 때 그 때 갈등을 풀어 나갔기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청실홍설” 만의 차별화 된 맛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A. 일단 면 종류의 요리의 생명은 바로 육수잖아요. 저희는 가쓰오부시와 멸치 육수를 베이스로 하여 단맛과 감칠맛을 높였어요. 또 만두는 일일이 수제로 만들기에 신선하고 맛있죠. 모든 음식에 재사용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육수 또한 확실히 신선하게 유지해서 맛을 유지시키죠.

■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위의 두 가게의 특징들은 모두 오래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식당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길을 꾸준하게 개척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키워온 식당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날이 올 줄은 처음엔 사장님들도 결코 모르셨을 것이다. 자신들의 소중한 청춘을 바쳐 이제는 인천의 맛집으로 당당하게 일궈낸 식당, 어쩌면 이 식당 자체가 바로 “맛집”的 대명사 아닐까.



우리 학교만의 특색 활동을 자랑하자~

인천초은고등학교 정지윤
인천공항고등학교 김채민
인천대인고등학교 이훈
인천계산여자고등학교 배유진
인천고등학교 손준형

높은 성적과 참여도를 중시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진행되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하고 생각하던 중 호기심이 생겨, 학생 중심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진정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특색활동 몇 가지를 조사하여 소개하려 한다. 인천시 기자단 학생들이 인천시에 위치한 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활동을 조사하였다.

처음으로, 학생기자 정지윤 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초은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PASSION & CHALLENGE 이다. 학생들은 집중력 향상과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2주간 ‘패션 앤 챌린지’에 참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패션 앤 챌린지 확인서와 명찰을 받게 된다. 매 교시마다 교과 선생님께 확인서에 사인을 받는 것이다. 수업 태도가 좋았다면 사인을 받는 것이고, 오래 졸았거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사인을 받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 확인서에 사인이 80% 이상인 학생들만이 활동의 수료증을 받는다. 패션 앤 챌린지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들을 골라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수업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업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패션 앤 챌린지 활동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 활동의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하신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패션 앤 챌린지’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선생님과 학생기자 정지윤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어떤 계기로 패션 앤 챌린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셨나요?

A. 요즘 같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수업태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의견을 내게 되었어요.

Q. 패션 앤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 기대했던 바가 있나요?

A.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만큼 수업시간에 더욱 성실히 임하고 발표도 많이 하는 모습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며 수업분위기가 밝아지니까요.

Q.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망한 점이 있나요?

A. 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너도 나도 신청하는 열정을 보이는데, 막상 기간이 되면 기대한 만큼 학생들의 태도가 성실해 지진 않더라고요. 신청할 때의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2주가 끝나갈 즈음엔 다시 태도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이렇다.

“패션 앤 챌린지를 하는 친구들은 따로 명찰을 받아 차게 되는데, 그 명찰을 보고 선생님께서 패션 앤 챌린지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아보신다. 그럼 우리들은 자신의 수업태도가 좋아야 한다는 긴장감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수업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학생들의 기대가 높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활동이지만,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인데, 학생기자가 생각한 보완점은 이러하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신청했을 때의 처음의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학생들의 수가 신청 수에 비해 현저

<패션 앤 챌린지 명찰> 히 적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끝나고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두 가지씩 질문함으로써 정말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보완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주는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인 것 같다. 적어도 1달 이상 꾸준히 진행되어야 변화한 수업태도에 만족하는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기자 김채민 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공항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제동행이다. 인천공항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교감하는 사제동행을 특색활동으로 삼았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비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를 학생들만이 아닌 선생님들과 함께함으로써 더 의미가 있다.

이 활동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학생기자 김채민 학생이 선생님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Q. 매번 전교의 1,2학년이 동시에 이동하며 자연을 걷는 활동인 사제동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학생들과 같이 걷는 것은 힘들어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과 하는 모든 것이 사제동행이지만 학교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사제동행 활동에 적극 참여했지만, 움직이거나 운동하기, 더운 날씨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사제동행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는 학생기자 이훈 학생이 재학 중인 대인고등학교이다. 특색활동은 아니지만 대인고등학교의 특징이 돋보일 수 있는 학급이다. 바로 사회 중점 학급인데, 이 학급의 설립취지는 심화된 학습과 대회, 행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부와 활동 두 가지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는 학생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 학급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러하다. 지금까지는 0지망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지만, 향후에는 우선 선발 없이 대인고등학교 신입생 내에서 희망자를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학급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대회 및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치신다.

그렇다면 사회중점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학생들은 타 학급과 다른 학습 분위기로 인해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좋지만, 특정 과목을 사회중점학급만 배우다 보니 최종적으로 성적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음은 학생기자 배유진 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계산여자고등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요즘 들어 학교만의 특징이 드러나는 교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었다. 마음대로 체육복만 대충 걸치고 들어오는 학생, 하복과 동복을 섞어서 착용하는 학생, 심지어는 아예 보란 듯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인천계산여자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복 착용 생활을 위해 프로그램을 하나 시행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매주 수요일에 학생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도록 사진을 찍은 후 제출하면 2주에 한 번 심사를 거쳐 교복을 제대로 착용한 학생 수 만큼 그 학급에 학급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실시한 후, 교복을 마음대로 입고 다니던 친구들도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 친구들을 위해 교복을 제대로 입고 등교했다. 이를 결과로 삼았을 때, 올바른 교복입기 프로그램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에서도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학급 인원이 많은 반은 한 번에 사진 찍기가 번거로워서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찍게 되며, 그로 인해 학생들끼리 교복을 빌려 입고 찍는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매주 수요일만 실시하므로

학생들이 단정하게 교복을 입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며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일단 검사하는 횟수를 주 1회가 아닌, 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담임 선생님께서 적극 개입하여 직접 사진을 찍어 교복을 서로 돌려가며 입고 사진을 찍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당연한 사실을 이런 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더 올바르고 단정한 교복 착용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은 학생기자 손준형 학생이 재학 중인 인천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PHIL 비전캠프'에 관한 내용이다. 인천고등학교 'PHIL 비전캠프' 행사는 본교 졸업 선배들을 초청해 그들이 학창시절 몸소 느꼈던 대학 입시과정과 실제 대학생 활동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 겪는 학업 관련 고민상담 등 선후배간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을 말한다. 'PHIL 비전캠프'는 1,2학년 재학생 중 성적 우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참가하는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진로희망과 희망계열을 학교 측에 적어내고, 학교 측은 이를 수렴해 각 조로 해당 계열의 선배와 재학생을 편성한다. 'PHIL 비전캠프'는 선후배간 사이의 어색한 벽을 허물고,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미니 운동회를 시작으로 저녁식사, 선후배간 질문시간, 그리고 심화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심화토론 활동은 앞서 편성했던 조별로 진행한다.



이 행사는 평소 학업활동에 열중하느라 지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쉬면서 앞서 대학입시를 경험하고, 목표했던 대학교에 합격한 선배들을 만나 대학입시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때로는 학업 관련 고민들도 같이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여 학생들이 다시금 자신의 목표와 의지를 확고히 하게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실제로도 많은 학생들이 'PHIL 비전캠프'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스러워 하는 반면에, 행사 일정이 시험기간과 겹쳐 적지 않

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학교 측과 학생들이 의논해 해결한다면, 행사에 참가하고 싶어 하나 시험공부에 매진해야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의 수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학교들만의 다양한 특색활동 및 행사들에 대해 조사하고 의견을 나누어보았다. 각자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다른 친구가 다니는 학교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요즘 교육이 주목하는 학생중심, 높은 참여도에 걸맞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며 이 기사를 마친다.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IGC에 가다

고잔고등학교 1학년 송다해
고잔고등학교 1학년 최서연
인천고등학교 1학년 홍수민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최찬영
승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유정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선형
인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박재은
인천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조윤서



인천글로벌캠퍼스 (Incheon Global Campus, IGC)는 외국대학교 분교를 유치 입주시키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송도국제도시 내에 만든 연합캠퍼스입니다. 젠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뉴욕페션기술대학교 등이 입주해 있으며 본교와 인천글로벌캠퍼스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송도 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인천을 세계의 특별도시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해마다 뛰어난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의 교수진들을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의 학교로 초빙하여 인천의 교육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송도에 위치한 이유, 교류를 통한 활동 등의 대한 질문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관계자분과의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Q. 글로벌캠퍼스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Numbeo 발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3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 중인 인천 최고의 신도시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시스템을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도시입니다. 송도 바이오 연구단지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선도기업과의 MOU 등을 통해 산학연 및 해당 기업 진출에 용이하고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공기업으로의 취업 및 인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캠퍼스가 인천 송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Q. 글로벌캠퍼스 내의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글로벌캠퍼스 대학만의 특별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저희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로 장소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글로벌 캠퍼스 내 입주한 여러 대학은 상호 학점교류, 연합 클럽(동아리)활동 및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치며 인적네트워킹은 물론 대학 생활동안 자신의 활동영역을 넓혀 더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Q. 본교와 한국캠퍼스 간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어떤 발전을 기대하시나요?

A. 홈캠퍼스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홈캠퍼스와 동일한 분위기로 공부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미친 한류열풍으로 홈캠퍼스에서 일부러 한국에 있는 캠퍼스로 넘어와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인의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충족은 물론이고, 한 학교를 다니면서 2가지 이상의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학생 개인의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지 한국뉴욕주립대학교를 기준으로 6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발전과 성과를 이루셨나요?

A. 외국의 대학은 경쟁률이 높아도 정원을 채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홈캠퍼스의 입학사정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므로, 학교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한 이후 한동안 정원이 적은 편이었으나 최근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사이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 및 그 동안의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로 우수한 학생들이 다수 지원하고 미국 등 현지의 학생들도 홈캠퍼스가 아닌 한국에서의 수학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아 정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졸업생 취업현황 역시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졸업생을 배출한 각 대학들은 LG,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한항공 등 국내 글지의 대기업 뿐 아니라 미국최대 회계법인 KPMG, 페이스북 싱가폴

지사 등 외국으로의 취업도 활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대학원 및 세계 최고 명문대학인 스위스 취리히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학생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계획과 기대되는 발전은 무엇인가요?

A.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총 10개 대학 유치를 목표로 시작된 국가프로젝트로 현재 까지 5개의 대학을 유치하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서는 세계 50위권 이상의 특화된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고자 목표하였습니다.



실제 유럽, 미국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는 아시아의 유능한 인재를 모두 흡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글로벌캠퍼스라는 형태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침 한국에 위치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입주 대학이 거둔 성과를 확인하고 입주를 하고자 여러 대학에서 적극 관심을 보여 2단계 사업 역시 1단계 사업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외국의 대학들은 아시아의 우수한 인재들을 흡수하여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학생들은 자국과 비슷한 문화권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넓히고 학부모들은 거주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 앞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유학에 대한 새롭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천글로벌캠퍸스 내의 여러 대학들 중에 활발한 교류로 손꼽히는 학교는 바로 뉴욕주립대학교입니다. 송도 한국뉴욕주립대와 본교 뉴욕주립대의 교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FIT 과정이 있습니다. FIT 과정이란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준말로써, 본교는 SUNY 스토니브룩이 아닌 뉴욕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FIT 과정은 패션 쪽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디자인 학과와 패션 마케팅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패션 관련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FIT 과정에서의 다른 과와의 차이점은 다른 학과는 2학년 때 본교로 돌아가지만 FIT 학과는 2년은 송도에서, 다른 2년은 뉴욕 본교에 가서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시 뿐만 아니라 송도 한국뉴욕주립대와 뉴욕주립대의 교류,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퍸스 내 여러 학교들의 교류는 여러모로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탐방 - 소래역사관에 가다

박문여자고등학교 1학년 양윤서
신송고등학교 1학년 김진태
고잔고등학교 1학년 강민서
공항고등학교 2학년 강상희
송도고등학교 2학년 하재우
인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민지

인천시교육청 학생 기자단(이하 ‘인청기’) 이기자조는 ‘인천의 역사탐방 – 소래역사관에 가다’를 주제로 정하여 조별 탐방취재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역사관을 방문하여 인천의 역사, 이름의 명칭에 대해 취재하고 왔다.

소래와 염전? 소래와 갯벌? 숨겨진 소래의 매력

양윤서 기자

‘인천’이란 단어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와 갯벌들을 떠올린다. 인천은 바다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갯벌의 사전적 의미는 조석의 차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갓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으로 연안습지의 일부분인 인천연안의 갯벌로 큰 조석간만의 차이와 원활한 바닷물의 흐름, 풍부한 먹이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서식처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래의 갯벌도 마찬가지이다. 소래의 갯벌에도 이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바닷가에서 흔히 보는 갈매기나 꽃게부터 처음 들어보는 민챙이까지, 소래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들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소래의 숨겨진 매력은 갯벌에서 끝이 아니다. 소래는 염전과도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소래염전은 1930년경 공사를 시작해 1934년 첫 소금을 생산한 이후 1996년에 폐염전이 되었다. 일찍이 주안, 소래, 남동 등 염전지대에서 천일염이 성행하여 한국 최초로 천일제염을 개척한 선구자면서 한때 한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 소래염전은 일제시대 때부터 염전으로 개발되어 소래 갯벌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였고 이 소금은 소래 포구를 통하여 수인선 협궤열차나 배로 인천항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보내졌다. 소래염전의 소금은 생필품 만이 아니라 일제의 전쟁을 위한 화약 제조용 군수품으로도 쓰여졌다. 1970년대에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으나 몇십년 후에 과거의 명성을 잃어 폐허로 남아 인근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2009년에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수인선에 따른 경제 성장의 역사

김진태 기자

수인선에 따른 경제 성장을 소개하기 앞서, 수인선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수인선은 인천을 나아가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를 함유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철도이다. 수인선은 1937년 관광을 목적으로 개설된 열차였다.

가장 먼저 수인선이 가져다주는 과거 발생 이익으로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개통 목적으로도 관광 목적 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 가능하다. 그 바로 이전 1920년대 한반도는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주요 원인에는 화물수송에 대한 비중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철도가 필요했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수인선이기 때문에, 수인선은 개통 당시부터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받고 첫 열차를 출발시켰다. 그리고 수인선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야말로 적중이었다. 우선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증폭한 교통량으로 알 수 있다. 인천 이외에 당시 한반도의 사정으로 봤을 때, 과도한 다수의 인구가 부산의 광역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인천상업의 주가를 대폭 증진시키는데 일조를 한 수인선은 경기도 내륙 지방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수송할 목적으로 1931년에 개통된 같은 회사의 사설 철도인 수여선을 인천항까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다. 사실 찬란했던, 당시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광복 후에는 오히려 수인선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관광에 대한 운수송의 의미도 많이 사라지고 1970년 이후 염전지대의 물량 확대와 새로운 교통편의 개편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대는 역할 또한 많이 사라지고 말았다. 경제개발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발전으로 수도권의 입지가 많이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인선의 이동경로는 주로 낙후된 지역을 이동하였기 때문에 결국 수인선은 1977년 화물운송과 다른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1983년에는 1일 3회로 운행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최초의 협궤열차였던 수인선 철로는 경제성이 낮아져 1995년 12월 영업을 중지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2012년 17년이라는 긴 정전을 끝으로, 수인선은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다. 2012년 인천송도와 오이도를 잇는 전철로 개편되어 운행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인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철로로 사랑받게 되었다. 미래에는 인천 3,4호선 구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과거처럼 다시 한번 인천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할지가 관건이다.

남동구 최초의 공립 박물관, 소래역사관

인천광역시 소래역사관을 탐방하다.

장민서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동구 최초의 공립 박물관인 소래역사관은 시간이 흘로 멈춰있어 아름다운 옛 추억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이다.

소래역사관에서는 소래갯벌, 수인선, 소래염전, 소래포구로 나누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소래갯벌에서는 소래지역의 유래와 갯벌에 대한 설명, 개항기 이양선의 출몰과 그 방비책인 논현포대, 장도포대지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수인선에서는 수인선의 건설과정과 협궤열차, 소래철교 등 수인선의 개통에서 폐지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래염전에서는 각종 염업도구의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전시와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제일의 천일염 생산지였던 소래염전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에서는 소래지역의 어업과 경제생활, 포구의 형성과 발전, 어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디오라마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전시의 마지막은 70%로 축소 재현한 협궤열차의 관람을 하며 소래역사관의 탐방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급속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소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소래역사관은 2012년 6월 29일에 개관하였고 매일 10:00 – 18:00에 열려 있으며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하고 월요일은 휴무이다. 입장료는 어른은 500원 청소년과 군인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함께 소래역사관을 방문하여 소래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

운 옛 모습을 느끼려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인선의 역사

강상희 기자

수인선(Suin Railway Line)은 인천의 송도와 경기도 수원 사이에 부설되었던 철도로 1937년 8월 개통된 이후 경기 내륙지방으로 미국, 소금, 해산물 등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로교통의 발전으로 이용객과 화물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성이 크게 낮아졌고 결국 1995년에는 폐선 되었다.

우리 조는 2012년 새롭게 개통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수인선의 지난 60여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소원, 시흥, 부천을 아우르며 수인선을 따라 달렸을 협궤열차를 바로 소래포구 역사관에서 추억해 보았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의 사설 철도부설과 운영은 일제가 국유철도 건설에 따르는 재정상의 제약을 타개하고 식민지 수탈에 필요한 철도망을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민간에 그 건설과 운영을 장려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래 일제는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여 식민지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본토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망의 확충이 시급했다. 따라서 1927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국유철도 12년 개획」을 확정지어 국유철도 5개선을 신설했다. 일반 철도보다 좁은 폭을 가진 우리나라 협궤선은 일제강점기인 1931년 12월에 개통된 73.4km의 수여선과 1937년 8월에 개통된 52km의 수인선 두 노선이 있다. 일제가 수여선을 부설한 목적은 원주지방의 개척을 위한 물자 공급과 이천, 여주지방의 곡물을 서울로 실어 나르기 위함이었고, 수인선은 수여선을 인천항까지 연결하여 군량미 수송과 경기만의 소래, 남동, 군자 등 염전지대의 소금을 수송하기 위함이었다. 수인선은 한때 인천 소래포구 일대에서 수확한 생선과 조개, 것갈 등의 해산물을 경기 내륙지방으로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여 호황을 누렸다.

앞서 언급한 염전지대의 '소래염전'인데, 소래염전은 1930년경 공사를 시작해 1934년 첫 소금을 생산한 이후 1996년에 폐염전이 되었다. 일찍이 주안, 소래, 남동 등 염전지대에서 천일염이 성행하여 한국 최초로 천일제염을 개척한 선구지면서 한때 한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였다. 소래 염전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염전으로 개발되어 소래 갯벌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였고 이 소금은 소래 포구를 통하여 수인선 협궤열차나 배로 인천항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보내졌다. 소래염전의 소금은 생필품만이 아니라 일제의 전쟁을 위한 화약 제조용 군수품으로도 쓰였다. 1970년대에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으나 현지는 과거의 명성을 잃어 폐허로 남아 있다가 2009년에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조성되었다.

원래는 수인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래포구 역사관에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수인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고, 또한 관심도 크게 가지게 되었다. 우리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수인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고,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우리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천 역사의 산실, 수인선을 파헤치다.

하재우 기자

수인선은 인천의 송도와 경기도 수원 사이에 부설되었던 협궤철도로, 1937년 8월 개통된 이후 경기 내륙지방으로 미국, 소금, 해산물 등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도로교통의 발전으로 이용객과 화물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성이 크게 낮아졌고, 결국 1995년에는 폐선되었다.

2012년 새롭게 개통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수인선, 그 역사의 길이만큼 수인선 주변에는 여러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먼저 인천역에 위치한 차이나타운이다. 인천역에 내려서 자유공원 쪽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중국풍 거리가 시야에 들어온다. 우뚝 솟은 폐루를 지나 계속 경사진 길을 걸으면 T자형으로 길이 양쪽으로 나뉘고 주변 상가는 온통 중국의 거리에 온 듯이 느껴진다. 붉은 색 간판과 종등이 내걸리고, 음식점이나 진열된 상품들도 거의 다 중국풍이다. 이렇게 화려하게 단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이것들의 과거를 뒤집어 보면 누구보다도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화교 사회의 명맥을 이어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사는 화교들이다.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과는 근본적으로 형성 구조가 다르다고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최초 노동자부터 근대 중국의 불안한 정국을 피해 이주한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중국인 거리가 형성된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근대화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의 이점을 살려 주로 상업을 위해 이곳에 안주를 한분들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인천역 바로 다음역인 신포역에는 신포 시장이 있다. 인천 신포국제시장은 인천의 개항 이후 형성된 전통시장이다. 개항기 때 외국인이 살았던 조계지 인근에 위치해서 외국 문물이 수입되는 창구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먹을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은 졸면과 닭강정, 오색만두 등 새로운 먹거리를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 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찾아 몰려드는 손님들로 시장의 하루는 늘 바쁘다.

바삭하게 튀겨낸 닭에 청량고추와 매콤달콤한 양념을 뿌린 닭강정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다. 코끝을 자극하는 인기메뉴로 3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1971년 문을 연 신포우리만두도 40년 동안 가게를 지켜오며 쫄면과 만두를 제공한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방앗간의 역사는 70여 년이나 됐다. 주인 이종복 씨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매일 떡을 만든다. 이 외에도 형형색색 오색만두, 공갈빵, 낙지호롱이, 수제 어묵, 팥죽 등 시장을 걷는 동안 눈과 코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이미 내국인들을 넘어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다시게 한다. 미각 한류를 만들어내는 그들 모습이 건강하고 생생하게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시장의 다변화를 꿈꾸며 공연문화도 선보이고 있고,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디자인 스튜디오를 활용한 의류디자인 사업을 시작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신포역에서 출발하여 송의역, 인하대역, 송도역 등을 지나면 소래포구역이 나온다. 여기에는 소래포구 어시장이 있다.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실한 회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가장 유명하고 편리한 곳이 이곳이다. 봄철이면 소래포구에는 꽃게를 사기 위해 모여든 관광객으로 붐빈다. 특히 배가 들어오는 날 바로 잡아 맛보는 꽃게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 이곳 어시장에는 고객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냄새와 바람을 막아주는 쾌적한 냉난방 시스템과 해수정화시스템이 적용된 현대식 어시장이다. 백화점과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택배서비스에 넉넉한 주차장까지, 소래포구 어시장은 완벽한 현대 어시장인 듯 하다.

- ‘인천’이라는 지역명칭의 유래와 인천의 유적지

김민지 기자

현대 사회에 인천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지역일 것이다. 물론 외국인들도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세계적인 공항을 통해 인천을 한번이라도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은 인천이라는 명칭을 갖기 전, ‘미추홀’이라는 명칭 아래에 시대는 흘러왔다. 소래역사관 탐방을 통해 이 인천이라는 지역 명칭에 대해 유래와 인천의 간단한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인천의 유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전, 조선으로 넘어간다. 조선 태종 당시, 행정구역을 개편하던 도중 ‘인천’이라는 명칭이 처음 언급되었다. 그 이후 다시 한번 제물포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다시 ‘인천시’라는 명칭을 찾아와 그 이후 인천이라는 지역으로 세계에 널리 퍼뜨리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수도인 한양의 옆에 있었으므로 길을 가다가도 쉽게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다. 남구 관교동에 위치한 인천도호부 청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시대 행정기관의 지방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천에 도호부가 설치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초기 학자인 강희맹이 쓴 “인천부승호기”에 1424년 이미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최소한 그 이전에 도호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사의 집무처로 15~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는 현재는 문학초등학

교 교정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되어 있다. 또한 도호부청사는 현재,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단체 관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이 되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찾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곳이다.

두 번째 유적지는 중구 송학동에 위치한 구)제물포구락부이다. 이 제물포 구락부는 평소에 길을 가다가 자칫 집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와 어울리게 지어진 건축물이다.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사교모임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일명 제물포 구락부회관이라고 한다. 1913년 일본제국 재향군인회 인천연합회 소속의 정방각으로 불리다가, 1934년 일본부인회, 광복직후에는 미군사병구락부, 1952년부터는 시의회, 교육청, 박물관이 함께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용도로 변경되었다.

1993년 7월 6일에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서양식 건축물을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도 내부를 살펴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들며 아직까지도 과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과거를 잘 재현해놓았기 때문에 인천 중구를 온다면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말 단정하고 예쁜가요?”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복

송도고등학교 1학년 하늘빛
인천공항고등학교 2학년 박세호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은빈
부개여자고등학교 1학년 심소율
신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영서
옥련여자고등학교 1학년 함수진
인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민재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김유정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교복 관련 청원이 400건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복에 제한을 두는 학교들은 넘쳐난다. 어른들의 시선에서는 그저 단정하고 예쁜 교복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입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불편하기만 한 비싼 옷일 뿐이다. 학생이 착용하는 옷인 만큼 학생의 입장으로 교복을 바라보았다.

우선 여자 교복의 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났는데 남학생들도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 송도고등학교 학생들과 박문여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교복에 대한 불편함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송도고등학교>

▲ 저희 교복은 정말 좋은데 땀 흡수가 잘 안돼요.(1학년 공○서 학생)
▲ 하복 바지를 교복점에 가서 사면 4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말한 것이 남색 계열의 바지를 그냥 시중에서 사서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면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땀 흡수도 안 되고, 비슷한 가격대의 나○나 이런 데는 기능성으로 편리하게, 신축성도 있고 시원한 재질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브랜드 마크가 있는 것을 학교에서 못 입게 하니까 바지에 땀도 차고 불편하죠.(1학년 박○석 학생)

<박문여자고등학교>

▲ 저는 가격과 구매하는 방법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사야 하는 교복이 얼마나 많은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셔츠와 같이 매일 입어야 하는 교복 제품들은 2벌 이상을 사야 하고 동복, 하복의 가격을 합치면 예상보다 많

은 가격이 들어요. 교복의 높은 가격 때문에 교복을 사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교복의 사이즈가 학기 중에 작아져서 다시 사려고 하면 파는 매장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2학년 민○우 학생)

▲ 아무래도 여학생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은 교복 체형 라인이 아닐까요? 교복에 라인이 과도하게 잡혀져 있어서 수업시간에도 불편하고 심한 학생들은 소화불량까지 와요. 교복 업체 광고에서도 너무 여학생들의 몸매 라인을 부각하는데 가끔씩 성적대상화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2학년 이○윤 학생)

▲ 여학생들의 교복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과 활동성,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것이 불편함과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교복을 입고는 팔을 들을 수도 없고요, 들을 수 있다고 해도 교복이 상체 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이 없다 보니 학교 생활을 하기도 매우 불편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많이 움직이는데 이에 비해 교복은 학생들의 활동성과 실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2학년 최○진 학생)

-이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송도고등학교>

▲ 저희 학교는 생활복 상의를 흰색 PK티로 제한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처럼 아무 흰색 티셔츠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땀 흡수 문제도 해결해줬으면 해요. 사실 해결방안이라기보다 그냥 개인의 노력이 아닌가 싶고... (1학년 공○서 학생)

▲ 해결 방안은 차라리 면 말고 기능성 재질의 하복 바지도 허용해달라는 거지요.(1학년 박○석 학생)

<박문여자고등학교>

▲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혹은 졸업하는 선배님들에게 교복 기증을 받아서 퍼치 못할 사정으로 교복을 구매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2학년 민○우 학생)

▲ 제가 현재 재학 중인 박문여고는 여학생들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생활복과 비슷하게 디자인한 체육복을 요일을 정해 입을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어요. 또한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따뜻한 학교 후드 티를 학생들이 입고 등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복의 종류에 다양성을 두어서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2학년 이○윤 학생)

▲ 뺏뺏한 교복 재질보다는 활동성이나 실용성이 강한 섬유 재질로 된 교복들이 보

편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생활 복이나 체육복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2학년 최○진 학생)

-이제 교복은 후드티와 반바지가 최고!



(사진출처: 스브스뉴스 한가람 고등학교 후드티 교복)

학생들의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해결책은 바로 후드티와 반바지이다. 이 해결책은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하나요?”, “몸에 딱 붙는 교복은 성적 대상화 인 것 같고 불편해요.” 등의 의견을 딱 해결할 수 있다. 사진 속의 학교인 한가람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끼리 자기 절제가 있거든요. 일단 믿으면 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나더라고요.” 라며 교복을 후드티로 변경하였고, 이에 한가람고 학생들은 크게 만족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과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요즘은 교복을 간편하게 바꾸거나 아예 없애는 학교도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만 한다. 과연 앞으로 많은 학생들의 바람대로 불편한 교복을 바꿀 수 있을까?



2018 다함께 돌자 인천 박물관 한바퀴!

승덕여자고등학교 2학년 최송이
부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윤서
신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진영
인천남고등학교 2학년 임채윤
신송고등학교 1학년 이우빈
부개여자고등학교 1학년 양혜빈
옥련여자고등학교 2학년 위혜인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조효빈



관, 녹청자박물관, 범폐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애보박물관, 옥토끼우주센터,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송암미술관, 인천근대박물관, 인천상록작전기념관, 인천어린이박물관, 인천역사자료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재미난박물관, 초연다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전통음식박물관, 해든뮤지움, 혜명단청박물관)이 참여했다.

우리 취재원들은 여름방학 동안 25개의 박물관 중 4곳(초연다구박물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한국근대문학관, 혜명단청박물관)의 박물관을 탐방 체험하고 왔

다. 각기 다른 인천의 다양한 박물관을 탐방하면서 인천의 새로운 매력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통 차(茶) 체험! – 초연 다구 박물관을 탐방하다.

초연다구 박물관은 2층 구조로 되어있으며, 1층에는 다구 전시실, 차 전시장, 시음장이 있고, 2층에는 다구 전시실, 다례 시연장, 다도 교육장이 있다. 1층의 여러 전시물 중에서는 표주박, 다완(茶碗), 차통(茶筒), 자사호(紫沙壺), 꽃차 등 여러 종류의 그릇과 전통 차(茶)가 1층에 전시 되어있다.



<표주박>



<1층에 전시된 꽃차들>



<2층 전시실>

초연 다구 박물관은 다구 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도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된 박물관이다. 표주박은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마실 때 쓰는 물잔 같은 것이다. 표주박에는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소지가 가능했다. 과거 시험같이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 들고 다니기 유용했다. 그리고 다완은 조선시대에 막사발(국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였다. 이것을 일본인들이 가져가서 쓰면서 차(茶) 마시는 도구로 발전한 것이며, 일본식 스타일 차(茶)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다완인 것이다.

비록 박물관 내에는 여러 도구와 차(茶)들만 전시되어 있고, 자세한 설명은 써있지 않다. 하지만 이 박물관에서는 무 차(茶)와 같은 각 종류의 차(茶) 시음 및 체험, 냄새 꽃차 교육, 기본 예절 및 다도교육 등과 같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과 학부모 또는 친구들끼리 직접 가서 체험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초연 다구 박물관은 입장료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초연 다구 박물관은 관람시간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하절기에는 10시부터 18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초연 다구 박물관의 박영혜 담당자는 ‘이 박물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다도 문화와 생활 예절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전통 차(茶)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인천의 역사를 품은 한옥!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을 탐방하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은 여느 박물관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외관과 소박하지만 옛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다. 1890년 경 일본인 사업가의 주택으로 조성되어 가옥, 레스토랑 사교클럽, 공관 등 오랜 시간 동안 그 용도를 달리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오다가 2001년 역사자료관으로 개관했다. 정문의 기둥은 이런 역사를 여실히 증명해 주듯이 193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보는 인천 축항 사진전>



<역사자료관에서 보관 중인 인천 사료들>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은 인천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모아둔 곳으로 인천의 역사 관련 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이를 정리·발간하는 시사(市史) 편찬위원회 기능을 겸하고 있다. 매년 <인천역사 문화총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3년~2017년까지 총 82권의 자료가 출간되었다. 또한 인천 관련 학술대회와 사진 전시 및 향토사 강좌 등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인 2018년이 한국 최초이자 유일의 갑문항인 인천항 제1도크가 조성된 지 100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시 보는 인천 축항’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인천 역사 사진전이 진행되었다.

역사 자료관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를 제외하고 6시간 동안 개방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탐방을 하기 어렵다. 2학기가 끝나고 겨울 방학 때에는 인천의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중구에 가서 역사 자료관에 들리 인천의 역사도 알아보고 바로 옆 차이나타운 짜장면도 맛보고 오는 것이 어떨까?

▶ 한국의 역사를 노래한 문학! – 한국근대문학관을 탐방하다.

한국근대문학관(The Museum of Korean Modern Literature)은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이 힘을 합해 인천의 옛 개항장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건물로, 인천문화재단이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적영하는 공공문화시설이다. 1890년대 근대 계몽기부터 1948년 분단 과정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또한 근대 문학을 소재로 한 영상물이 상영되기도 하며, 연애소설과 모험소설을 주제로 전시되어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즐기는 모두에게 열린 문학관”을 지향하고 있다.



<한국 근대 문학관 전시실 내부 모습>

한국근대문학관의 전시는 이렇듯 소장 자료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문학과 미술·영화의 만남 등의 기획전시와 희귀자료를 분기별로 전시하는 작은 전시로 나뉜다. 또한 한국문학 명작 특강, 세계문학, 인천학, 인문학 특강을 열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한국문학 포럼과 같은 전문가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최하고 운영하여 한국 근대문학과 인문학의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최남선의 『경북철도노래』, 이광수의 『무정』,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같은 유물들 또한 소장하고 있다. 외에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홍명희의 『임꺽정 시리즈』와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또한 연구 자료들과 관련 도서들은 2층의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은 한국근대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는 소장 자료 및 상설전시, 기획전시와 작은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 약도 및 건축에 대한 소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올 여름에는 이를 참조하여 한국근대문학관을 방문하고 한국근대문학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국내 최초의 박물관이 우리 고장에?! – 혜명단청박물관을 탐방하다.

혜명단청 박물관은 ‘단청’을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박물관이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 청장 기능보유자인 정성길 관장이 평생 수집해 온 자료들을 모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동 문화의 거리에 혜명단청박물관을 2009년 4월 4일 개관했다.



<1층 전시관>

<2층 단청 전시물>

<2층 전시관>

이곳은 2층 구조로 되어있으며 1층 오른 편에는 근현대 다리미 전이 진행 중에 있다. 솔 다리미, 화로 그리고 다리미를 보관하던 다리미 합의 십자수 등이 전시되어 있다. 왼편에는 현대의 물건과 단청기법이 결합한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에코백, 모형 배 등이 전시되어있으며 특히 벽면에 걸려있는 계란 판위에 단청기법으로 색을 칠한 작품이 눈에 띈다.

2층에는 단청기법을 활용한 목재 작품들과 모형 미륵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더불어 단청기법의 설명과 단청 물감 만드는 방법 등도 전시물 옆에 부착되어 있어 단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혜명단청 박물관에서는 전시자료로서의 단청과 문화예술품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 청장으로부터 단청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있는 산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비누를 직접 만들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천연비누 만들기, 단청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단청 거울 만들기가 있다. 관람 가능 시간은 하절기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동절기 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매주 월요일과 설날, 추석에는 휴관을 하므로 유의해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자세한 사항은 혜명단청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032-868-58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폐미니즘

신송고등학교 1학년 이승우

신송고등학교 1학년 최유성

인천남동고등학교 1학년 이상목

인천영선고등학교 1학년 김민아

삼산고등학교 2학년 민지현

서인천고등학교 2학년 구도연

승덕여자고등학교 2학년 차효인

옥련여자고등학교 1학년 유한나

사회자: 최근 폐미니즘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번 좌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폐미니즘이 이슈가 된 것은 여성들이 그 이전까지는 여성에게 많은 차별과 혐오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 기자분들이 느끼는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차별이나 혐오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구도연: 생활 속의 여성 혐오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학생이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여성 혐오는 생각한 것보다 정말 많이 일어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 여학생이 잘못을 하면 한 여학생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학생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비하하는 발언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치녀, 된장녀, 한녀충, 김여사”등이 있다. 제가 생각 했을 때 여성 혐오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대해서 여성 혐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민지현: 2018년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폐미니즘'은 지금 까지도 포털 사이트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이 남성중심사회라고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명절에는 여자만 일을 하고, 범죄가 두려워 어두운 길을 피해가는 상황이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몰카가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메갈'이라 칭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을 '한남'이라 부르며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서로에

게 '혐오'적인 말들을 내뱉는다. 폐미니즘이 이런 '혐오'를 하라고 등장한 것일까?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남녀평등을 외치려고, 서로 노력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한국의 폐미니즘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모두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사회자: 학생 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성에게 차별과 혐오가 많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폐미니즘이 진정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을 받게 된 직접적 계기인 '미투' 운동에 대한 의견도 한 번 들어보자.

최유성: 미투운동은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 미투로 인해 일부 여성들의 성적인 아픔의 치료에 크게 기여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화된 사실이지만, 현재 이 미투의 악용으로 인해 일부 남성들 혹은 전체를 싸잡아 가해자로 낙인찍혀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이로 인하여 이성간의 접촉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집단들은 "펜스 룰"을 지정하여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전면 제한하여 또 다른 차별문제가 나타나 평등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나는 미투운동을 반대한다.

이승우: 성범죄의 피해자가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폭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는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폐단을 해소하고 개선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오랜 시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왔다. 또,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피해도 많다.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미투 운동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다. 의식의 문제다. 피해자가 당당해지고 가해자가 고개 숙이는 정의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 미투 운동의 부정적인 면은 없다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근거 없는 모략으로 미투 운동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 씨 같이)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나. 미투 운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아시아 아르젠토가 17세 소년을 성폭행 했다는 기사를 봤다.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만큼 대중의 실망은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투 운동 자체가 비난 받아서는 안 되지만.

김민아: 언제 부턴가 우리 사회는 미투 (Me Too) 라는 말이 핫이슈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투는 힘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권력 우위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여성은 성폭행한 끔찍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미투 사건이 아닐까 한다. 촉망 받는 국회의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무죄 판결이라는 것으로 또 한번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끝없는 미투 외침에 끝내 무죄라는 황당하기만한 판결. 우리 한국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묻고싶다.

사회자: 미투 운동에 대해서 학생 기자분들께서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처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근 열렸던 혜화역 시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최유성: 혜화역 시위는 일부 여성 극우단체인 메갈, 워마드 등의 집단이 양성평등을 주장하고자 발생된 시위이다. 본 목적은 몰카 사건 처벌문제로 인한 것인데, 이것이 시위의 적합성에 맞지 않는 문 대통령 비하발언, 가슴 노출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변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폐미니스트의 기본적 정의마저 변질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나는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은 사라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혜화역 시위를 포함한 특정 성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모든 관념에 대해 반대한다.

차효인: 미투로 시작된 사회적 방향이 일시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고 반증해주는게 바로 혜화역 시위라고 생각한다. 그냥 성폭력 경험을 폭로해서 남성을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다양한 권리를 요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 된 느낌이다. 집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여성들이 연대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사회에 내보였다는 건 의미가 크다.

사회자: 방금 논의에서 폐미니즘의 의미가 변질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변질된 폐미니즘을 가리키는 것은 대부분 워마드와 같은 극단적인 레디컬 폐미니즘을 일컬곤 한다. 이에 대해 기자분들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구도연: 레디컬 폐미니즘은 급진적인 폐미니즘, 즉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예를 들어 가부장제)를 파악해 타파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sns에서 레디컬 폐미니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레디컬 폐미니즘은 나쁜 것이다.”와 “레디컬 폐미니즘은 나쁜 것이 아니다.”로 나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과 생각이 다르듯 폐미니즘을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디컬 폐미니즘에 대해 나쁘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하자는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승우: 워마드 등 레디컬 폐미니즘이 주장하는 미러링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러링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나 현상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되갚는다는 신조어가 아닌가? 특히, 미러링을 성평등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미러링이라는 현상을 잘 뜯어보면, 결국 혐오가 혐오를 낳는 양상에 불과하다. 원인이 된 '혐오'는 비판해 마땅하지만, 혐오로 대응하는 것도 원만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혐오를 혐오로 대응하면, 결국 또 그 혐오에 대한 소위 '미러링'이 등장하게 될 뿐 아닌가? 미러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억지 논리인데, 이것이 마치 성평등의 첫 걸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무리다.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혐오'는 혐오가 아니란 말인가? 세상에 깨끗한 살인이 어디에 있고, 깨끗한 폭력은 어디에 있고, 깨끗한 혐오는 어디에 있는가? 정작 성차별을 해온 기성 관념은 사라져가는데, 작금에 미러링이라니,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다.

사회자: 이번에도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이 나왔다. 아직 미투 운동이나 레디컬 폐미니즘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니 기자님들 중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이번에는 폐미니즘 내의 새로운 기류라고도 할 수 있는 탈코르셋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민지현: 폐미니즘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탈코르셋' 주목을 받았다. 탈코르셋이란 코르셋이 당시 아름다운 몸매로 보이기 위해 건강을 극단적으로 포기하고 쓰였다는 점에서 유래된 것인다. 즉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자발적이지 않고 사회나 남성에 의한 억압이라고 판단하면 코르셋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를 옥죄는 코르셋을 벗고자 '탈코르셋' 운동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탈코르셋 하지 않는 여자들에게 탈코르셋을 요구하고, 비난을 하는 등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탈코르셋은 현재 폐미니스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운동이다. 어디까지를 탈코르셋으로 볼 것인지, 코르셋을 벗어야만 폐미니스트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들이 서 있다. 하지만 어떤 강요도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탈코르셋은 모두 각자의 가치관대로 잘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성차별, 폐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겐 익숙한 용어일지도 모르지만 탈코르셋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의 기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탈코르셋, 여성의 꾸밈에 대해 한 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주체성을 지닌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회를 바라며 이전 사회에서 어떤 여성 위인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김민아: 피겨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을 피겨열풍으로 몰아넣었던 피겨 여제 김연아. 이제는 은퇴를 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김연아는 피겨여왕으로 남아 있다. 김연아는 90년생이라 아직 29세 밖에 되지 않지만 10대부터 활동하여 특히 2010년 벤쿠버 올림픽 228.56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로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피겨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온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얼마전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대사까지 이룩한 업적을 이뤄냈다. 힘든 국민들의 삶에 희망과 긍지가 되어주었던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전설로 남아있을 것 같다.

유한나: 안경신은 1988년 7월에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 시절을 보냈고, 그녀는 이에 무력으로 투쟁했다. 그녀는 “나는 일제침략자를 놀라게 해서 그들을 놀라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무력투쟁이다.”라고 말 하며, 그녀의 행동은 일제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1919년에 있던 3.1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세계의 외신에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일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평남도청과 평남경찰부를 임신부의 몸으로 폭탄을 던져, 폭파시켰다. 그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국제 공항 살펴보기

인천만수고등학교 2학년 고대곤
인천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유영은
인천해송고등학교 2학년 김나연
인천대건고등학교 1학년 김우승
인천해송고등학교 1학년 공민정
인천해원고등학교 2학년 한효성
인천연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변주영
인천영종고등학교 2학년 이채진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즐기자!

지난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는 별도로 이루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제2여객터미널에서는 대한항공, 멜타항공, 에어프랑스항공, KLM항공이 운항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번째는 공항리무진버스이다. 공항 리무진버스는 지역별로 운행시간이 다른 이 버스의 경우 제1여객터미널을 들렀다가 2여객터미널로 향한다. 두번째는 지하철과 직통열차이다. 지하철의 경우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까지의 이동시간은 6분이 걸린다.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제2여객터미널 역까지 51분이 걸린다. 세번째는 KTX이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까지만 운행하던 KTX는 이제 제2여객터미널까지 연장운행을 한다. 네번째로는 무료순환버스이다.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이어주는 이 버스는 배차간격이 5분이며 이동시간은 13분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기존 제1여객터미널과 비교하여 크기는 줄었지만 청소로봇, 안내로봇, 셀프 체크인, 출입국 자동심사대 등이 설치되어 편의성에서 더 강조되었다.

제2터미널에 설치된 편의시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이다. 승객 스스로 티켓을 발권하고 수하물도 부칠 수 있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이 키오스크가 62개가 설치돼 항공사 직원의 도움없이 이용객 스스로 발권하고 수하

물을 위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1터미널과 비교하여 2배 더 빠른 탑승 수속이 가능해졌다.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제2여객터미널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로봇 ‘에어스타’

제2여객터미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실내 인테리어이다. 인천항공공사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은 환경친화적인 인테리어를 갖추었다고 한다. 실제로 제2터미널 실내에는 다양한 곳에서 환경친화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섬터 곳곳에 푸른 나무와 풀들을 배치하였고 여러 매점 또한 나무로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다.



<인천공항 내의 환경친화적인 인테리어>

제2터미널은 제1터미널과 비교하여 많은 불편한 점들이 개선되었지만 모든 점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2여객터미널을 하루 동안 사용해본 한 20대 여성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여성은 장점으로 “제1터미널은 너무 넓은데 반면 제2터미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편하다.”라고 답했고 단점으로는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할 때 샤워실과 같은 편의시설의 수가 부족하여 불편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셀프 체크인 기기가 편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몰려 이용하는 데 불편했다.”고 한다.

현재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만약 당신이 제2여객터미널 사용할 일이 있다면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여러 편의시설을 사용하여 제대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

인천 공항 자기부상열차

미래로 나아가는 기술

우리는 항상 수많은 자동차와 자전거 등과 같은 탈 것들을 마주치게 된다. 그런데 인천 공항에 우리가 평소 볼 수 없던 새롭고 특별한 탈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자기부상열차이다.

이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용유역까지 총 6.7Km의 거리를 운행한다.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 사진/출처_네이버>

또한 이 열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하며 무료운행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는 시범노선의 성격이 짙은 만큼 한시적 기간만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기부상열차란, 기존의 열차들과는 다르게 자기작용의 원리를 이용하여 차량을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는 열차를 말한다. 인천공항의 자기부상열차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기부상열차는 아니다. 하지만, 최초로 상용화된 자기부상열차라는 테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93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운영되게 된 자기부상열차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열차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철도는 오는 2019년까지 9.1km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개통 계획을 2013년에 두고 있었지만, 기술상의 문제와 안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개통이 계속 늦어져 2016년에 개통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20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려던 계획 또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상열차의 맨 앞칸 모습>

인천공항 자기부상 철도의 특이한 점은 전체 차량 무인 운행이라는 점이다. 무인 운행이라는 점 때문에 가장 앞 칸에 타면 풍경이 전부 보인다는 특이점이 있다. 또한 차량 중간 중간에는 현재 역과 속도를 보여주는 모니터 또한 달려있다. 무인 운행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나라의 자기부상열차처럼 빠른 속력을 내지 못하고 평균 80km/h 속도로 달린다는 특이점이 있다.

하지만 역 간의 거리가 짧고 곡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체감 속도는 더 느리게 느껴진다. 차량 내 안내방송의 성우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안내방송의 성우와 같다. 가는 방법은 인천공항 제1역 기준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무료 통행이지만 역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교통비를 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있다.

27년째 계속된 정기 수요집회 속 ‘청소년의 외침을 만나다.’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김규영
인천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최유진
인천원당고등학교 1학년 안시은
인천해송고등학교 1학년 전소민
학익여자고등학교 1학년 염은주
인천예일고등학교 2학년 김란



2018년 8월, 최고온도 41도까지 올라가는 더위가 한국을 강타했다. 하지만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46차 정기 수요시위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내리는 땀을 뒤로한 채 일본 정부에게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었다. 어느덧 27년째가 되어가는 수요집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이다. 실제 집회를 방문하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를 쉽게 볼 수 있다. 태어나기도 전 시작되었던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무엇이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을까? 그리고 그들의 참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는 직접 정기 수요시위를 방문해, 많은 청소년들과 수요시위 주최자 분들을 만나며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 올해로 27년째 맞은 ‘정기 수요집회’ 폭염보다 더 뜨거웠던 그들의 열기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수요집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요집회에서는 시위 이외에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많은 고교 동아리들은 관련 팔찌, 벳지등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 중이었다. 수요집회는 주제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이다. 공식명칭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이다. 1992년 1월에 시작된 이래 현재 27년째 열리고 있으며 주제로 개최된 집회로는 세계 최장 기간 집회 기록이다. 이번 제1346차 정기 수요시위의 주최기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며 한살림서울 생협이 주관하였다.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기억하며,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작년 12월, 우리 정부는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팀이 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부적합성을 밝혀냄에 따라, 일본정부가 피해자 요구에 부합하는 법적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위안부 합의 새방침은 절대 수용불가라는 망언과 오히려 고교역사교과서의 검정기준을 강화하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한살림서울생협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공식 인정과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수요집회를 통해 진행 중이다.

수요집회에서는 주로 경과보고, 공연,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할머니 선물 전달식이 진행되어는데, 7.8월과 같은 학교 방학 기간에는 수요집회 참여자의 80%가 중고등학생들이다.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오는 학생들도 있고, 동아리 혹은 단체로 참가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들은 직접 준비해온 자유발언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멀리는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수요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앞에 나가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수요집회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수많은 고등학교에서는 ‘수요집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다하다. 우리는 수요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그리고 수요집회 주최자분들께 수요집회에서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직접 묻고 싶었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수요집회가 끝나고, 우리는 드디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 “수요집회는 계속 이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희

가 배우기도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 수요집회 주최 관계자 정의기억연대 오선희 차장

Q. 현재 어디에 소속되어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정의기억재단에 소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명칭이) 정의기억 연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수요집회 주최도 당분간은 정대협으로 같이 쓰지만, 조직 명칭은 정의기억 연대로 바뀐거고, 저는 인권연대 차장 오선희입니다.

Q. 수요집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히 집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A. 수요집회는 이제 매주 진행을 하는데, 휴일 없이 이제 1992년 1월 8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대협 출범할 때부터 같이했던 단체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에 동참해보고 하고 싶은 학교나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매주 주간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작할 때는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약간 수요시위를 상징하는 그런 노래예요. 왜냐면 혼들림 없이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뭐 거기서 보통은 저희 활동했던 경과를 보고 진행하고, 그리고 참여한 분들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자유발언도 진행하고, 이제 날씨가 더워서 할머니들이 나오시지 못 했는데 할머니들이 나오시면 (할머니들)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걸 다시 약속하면서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Q. 이 집회를 열게 된 계기나 의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계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밝혀진 게 1991년 8월 14일 날 김학순 할머니가 공개 증언을 하면서 밝혀졌잖아요, 근데 1992년 그 1월에 일본 당시 미야자와 국무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계기로 해서 1월 8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일본 정부가 그 자신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 되었죠. 그리고 1992년 1월 8일에 시작했던 게 쭉 이어져가지고 획수로 지금 28년째, 27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거죠, 매주.

Q. 이런 집회를 여는 데에 있어서 의의를 두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의의라고 하면 사실은 뭐, 많은 이슈가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피해자들이 직접 운동의 주최로 나서서 시작한 것도 의미가 있고, 그 피해자들이 피해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서 운동의 주최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시민들도 동참하게 되고, 27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공간에서 저희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명서에도 나왔지만 여전히 그 무력 분쟁구역에서 아동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전성폭력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좀 더 확산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이 공간 차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무역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전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7년간 이어왔던 이 싸움을 보면서 그 다른, 많은, 전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나라에 생존자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더 ‘화장시켜야겠다.’라는 영감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Q. 수요집회의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죠. 왜냐면 이제 그 역사교육을 다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가해국가였고, 해서 역사교육을 독일도 해서 그걸 이제 제대로 배우고, 그 아픈 역사를 자신들이 잘못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근데 일본은 그런 교육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청년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일단 학교 교육에서도 교육이지만, 또 한일합일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2015 한일합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시위를 하면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도 운동 사례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7.8시위 때 할머니들이 시작했던 운동을 지금 10대, 20대들이 이어받아서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계승해서 우리가 할머니들의 그런 뜻을 받아서 더 잘 운동을 확대하고, 계속 이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배우기도 하거든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공부 때문에 사실 많이 바쁘겠지만 시간이 있거나 하면 뭐 개인적으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학교에서 뭐 현장학습 같은 거 할 때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동아리에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Q. 수요집회를 통해 이루어내고픈 최종적인 목표가 있나요?

A.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전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상 조사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금 등의 그런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이 또 요구였고 그게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교육 기업 계승을 말씀드렸지만, 청년 세대들이, 이 문제를 청소년, 청년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하고, 이 피해자들의 삶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관 이런 것도 건립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나라의 이런 전시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걸 언젠가는 향후에 막아야, 끝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7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수요시위는 사실은, 그 요구를 뛰어넘어서 좀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명시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할머니들이 바랬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 인정, 범죄사실 인정, 이런 것이겠지만, 그걸 더 뛰어 넘어서 전시 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수요집회 참여자. 염경중학교 3학년 이유진, 이한솔 학생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저희는 염경중학교 3학년 이유진, 이한솔입니다.

Q. 먼저, 수요 집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 사실 저희가 역사 숙제 때문에 수요 집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수요 집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다가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자유 발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렇게 자유 발언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A. 저희는 사실 역사 숙제 때문에 급하게 오게 되어서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지는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전에 미리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친구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도 읽어보면서 사전에 위안부와 관련된 지식을 정확히 알고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Q. 이번 수요집회 참여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저희는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 하실지 몰랐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울컥하고 마음이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 수요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음을 깨닫고 저희 또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아직까지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수요 집회에 한 번쯤 참여해보면 역사책이나 뉴스에서 보던 것 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은 꼭 참여해봤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더운 날씨지만, 다같이 수요 집회에 참여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수요집회 참여자 천안불당중학교 1학년 심예지 학생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불당중학교 1학년 심예지입니다.

Q. 먼저, 수요 집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A.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 위안부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직접 수요 집회에 참여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A. 위안부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면서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직까지 일본이 벌인 일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가요. 할머니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대로 된 사죄를 하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할머니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자유 발언도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수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A. 친구들과 영상과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연설문도 작성해보면서 최대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수정하면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Q. 이번 수요집회 참여를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를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Q. 아직까지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더운 날씨지만, 다같이 수요 집회에 참여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해드렸으면 좋겠어요.

■ 함께 모인 수요집회, 그 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오랜 아픔

-탐방취재를 마치며

“더운 날씨에도 성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더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청소년들의 열정은 무척이나 감동적이었고 기자로서 더욱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취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역사책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의 열기는 이 사건의 뿌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나의 다짐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 전소민 기자

“기사를 통해 최대한 수요집회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 일본군 성노예제 사건에 관한 많은 자료조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영화, 책이 아닌 ‘사실’로 피해를 입었던 할머니분들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그동안 많은 도움과 관심을 드리지 못했던 제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사과’가 과연 어려운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도 저와 같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감을 해준다면, 저와 같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공감을 해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때까지 수요집회는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조사 과정 속 한국군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많은 민간인 학살과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저지른 일만큼이나 우리가 저지른 일도 꼭 기억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 손예진 기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동영상과 뉴스매체를 통해서만 수요집회를 보았었는데 실제로 참여하여 직접 주최관계자 분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여러 학생들의 주장을 직접 듣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이 1시간동안 열심히 집회를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꼈고 그동안 나는 역사에 아픔에 무뎠던 것 같아서 위안부 할머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염은주 기자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이었지만 수요 집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더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수요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많은 사람들로 일본 대사관 앞이 가득 매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방학을 맞이하여 수요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평소에 교과서나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직접 집회에 참여하고 자유발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피켓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위해 수도 없이 노력한 학생들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국가적 문제만이 아닌 국민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 하지만 한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고치고자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계속되어야 하며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영 기자

“언제 아픈 역사가 있었냐는 듯이 서울의 건물은 반짝였고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바닥은 분주한 사람들의 움직이는 구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는 분주하게 역사를 위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집회’.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 누가 나와서 집회에 참여할까라는 자문을 민망하게 할 만큼, 서울을 가득 채우던 뜨거운 한 여름의 공기들을 민망하게 할만큼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사람들의 열정은 훨씬 뜨거웠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장단이 열심히 공연을 펼쳤습니다. 각 학교 동아리에서 파견된 여러 부스들에서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억하기 위한 희망 뱃지와 머리끈들을 판매했습니다. 기자단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주최 측의, 어른들의, 청소년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더욱 깊었고 사람들의 인터뷰 답변은 기자로서 질문을 던진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태 관심이 없다가 활동을 위해서 잠시 소녀상을 지키는 척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벼거웠습니다. 그 날 바로 위안부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았으며, 인터뷰 기사를 정리하며 답변 속 몰랐던 정보를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방학동안의 어떤 게으름도 덮어줄 만큼 그 날의 제가 참석했던 수요집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느꼈습니다.”

– 최유진 기자

“수요집회라는 것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냥 촛불집회 같은건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하고 그곳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면서 이 수요집회가 티비에서 보고, 들어보기만 했던 그 위안부 사건에 대한 집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은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 할머님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수요집회 진행 과정에서 읽는 연설문과 설명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저는 저 이외의 2명과 함께 주최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요집회가 단순히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아닌 전쟁 중 성폭력에 대한 여성인권과 아동인권 등을 포괄적으로도 포함하는 집회라는 것을 세로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수요집회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조사하면서 이러한 집회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알고 한 번이라도 참여해봐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저의 친구들을 포함한 아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위안부에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위안부 할머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집회에 몇 번 더 가서 할머님들을 응원하고 같이 전쟁 중 성폭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 안시은 기자

“수요집회라는 것은 단순히 쉽게 모인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 여러 가지 준비와 절차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규모는 작아보이지만 목소리만큼은 큰 집회라는 것이 제 마음에 훨씬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위안부 관련 문제는 국가적으로 엄청 예민한 문제인데, 국가적으로 예민하다보

니 피해자이신 할머님들이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낸 일본이 위안부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열린 2015년 한일정상회담으로 위안부 문제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게 강력한 처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들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밖에도 사회적 문제나 전쟁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저 또한 부족하고 참여하려는 노력 또한 잘 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하여 그 노력들로 인해 우리 사회를 국민들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란 기자

■ 무더운 여름, 하나 둘씩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만들어진 수요집회.

그 작은 관심들이 모이고 모여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은 그 누구의 관심보다도 긍정적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수요집회에서 저희가 보았던 수많은 청소년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중 한명이 되어주세요.

수요집회는 더 큰 청소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꿈나무들, 성장을 위한 취미란 날개짓을 하다.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이도영
인천연송고등학교 1학년 최민서

인항고등학교 2학년 이준영

인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예은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박채영

인천해송고등학교 1학년 김서연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이한비

요즈음,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관문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일한 숨구멍인 취미, 청년들 사이에선 일명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 즉 학생들의 본분인 학업과 삶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풍토를 반영하여 기업들도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직장인들과 예비 직장인들에게 필시 겨울 속 작은 손난로 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여가 시간도 없이 삶에 치이는 이들은 직장인뿐만 아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라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사정 역시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학교에서 긴 시간을 보낸다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스라밸(Study and Life Balance)”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고등학생들의 ‘스라밸’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생활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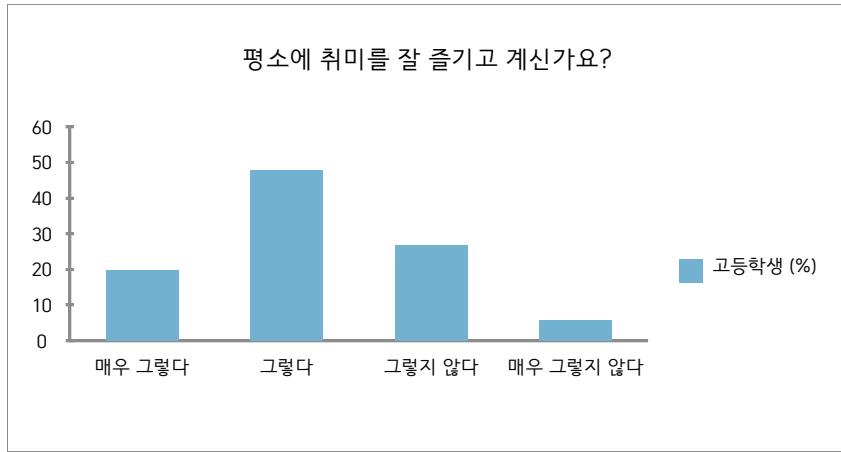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고등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취미를 잘 즐기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6%로,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여가를 틈틈이 즐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이 주로 즐기는 취미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등이었다. 그 이외에도 ‘노래’, ‘체육 활동’, 등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이 적은 것들을 주로 즐겼다.

이는 취미를 잘 즐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시간이 없어서” 취미를 즐기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치 역시 높았다. 학업에 치여 사는 학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었다.

취미를 즐겨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가히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취미를 선호하는가? 학생들은 '춤', '악기 연주', 등의 취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자신만의 잠재 능력을 끌어낸 취미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앞서 나온 '음악 감상' 등의 취미보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취미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평범한 취미를 즐기는 까닭이 용돈 때문이라면,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다시금 곱씹게 한다. 특색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자신의 장기를 살려 진로와 연결해 나아가려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국가 차원의 노력 역시 엿볼 수 있었다.

인천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예지 학생은 꿈이 시인으로 어떻게 그러한 취미와 진로를 정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화 동주를 보고 글을 쓰는데, 관심이 생겼으며 이러한 생각이 '문학인'이라는 꿈을 쏘아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러한 취미에 관련된 활동에 참여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습작시대 2.0을 통해 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문학잡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즐기기 벅찬 취미를 교육청 지원을 통해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모인 학급을 인터뷰 하였다. 인향고등학교의 기술융합반, 그 학급에서는 드론 그리고 3D 프린터와 같은 고가 장비로 실제 부품을 조작하여, 그들만의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기술융합반의 심근호 학생은 취미 생활을 지원 받는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하지만 실제 생활기록부라던지 실제 성과로 남아, 대학 입시 때 유리해졌으며, 1년 뒤는 2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미이자 진로를 앞으로도 더욱 화려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후배들도 보다 여유로운 취미 생활을 즐겼으면 한다고 답했다.



인천의 문화, 그리고 청소년

인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진솔
인천논현고등학교 1학년 김가은
인천해송고등학교 1학년 유희주
인천연송고등학교 2학년 김재민

제일고등학교 1학년 윤이준
인천신현고등학교 2학년 이수연
인천논현고등학교 1학년 임채린
인천국제고등학교 2학년 이우진

과거 인천의 문화 공연 탐구

이우진 기자

다양한 문화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과는 달리, 인천에서 열리는 문화 공연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천의 문화공연 역시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의 초기 문화 공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다면, 인천에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4월 8일 개관하였고, 공연장과 전시실, 회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연장은 1,33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486석의 소 공연장, 440석의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실은 대전시실과 중앙전시실, 소전시실, 미추홀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4석 규모의 국제 회의실은 각종 회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 문화예술의 요람으로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시립무용단·시립극단 등 4개 예술단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열린 공연으로는 2006년 라이브 가족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 팬”이 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기존의 피터 팬을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년의 남자로 설정하여 40여 년 동안 복수의 한을 품고 있던 후크선장과 피터 팬의 싸움을 특수조명과 화려한 무대를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한 가족뮤지컬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가톨릭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창현의 매직스페이스 등 이곳에서 진행된 문화공연은 대부분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은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차이나타운의 활성화와 양국의 우호

증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인천광역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인천 중국의 날 문화 축제(Icheon-China Festival)를 2002년부터 개최해 왔습니다. 2002년 인천-중국의 날 페스티벌로 시작하였고, 이듬해부터 ‘인천 중국의 날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 축제기한이 매해 9월 말부터 10월 초 기간이었으나 2011년에는 4월 말부터 5월 초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축제에서 열리는 공식 공연행사로는 차이나 갈라 쇼, 한중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또한 개항장 역사탐방, 중국야시장 체험, 한중 전통놀이체험, 한중전통차 체험, 중국 전통의상 체험 등 사람들이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개최지가 인천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인 만큼 인천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이외에도 서구 문화회관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화회관은 1995년에 향토문화 예술의 육성을 추구하고 인천 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관하였습니다. 이곳은 개관 아래 꾸준한 공연을 통하여 서구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문화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라는 모토로 ‘생활 속 문화예술 구현’을 통해 서구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교향악단초청 공연, 가정의 달 기획공연,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왔습니다.

현재 인천에서 열리는 문화 공연은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음악회뿐만 아니라 인천청소년 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연령층이 공연에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이전에는 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 수 있듯이, 과거 인천의 문화공연이 있었기에 현재의 문화공연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가장 보편적인 청소년 문화

유희주, 김재민 기자

최근 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문화의 갈래 중 하나인 영화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4~19세의 청소년 89명을 대상으로 영화관에 자주 가는지, 한 달에 영화를 몇 번 보는지, 좋아하는 장르는 어떤 장르인지, 청소년 할인 혜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 총 5가지 항목을 정해 물어보았습니다.

영화관에 얼마나 자주 가냐는 질문에 한 달에 1~2회라는 답변이 5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거의 가지 않는다(31%). 한 달에 3~4회(11%), 5회 이상이 5%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영화 장르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액션영화가 50%로 가장 많았고, 로맨스 영화가 30%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판타지(28%), 스릴러(25%), 코믹(22%), 가족영화(15%)가 뒤를 이었습니다.

3번째로 영화관에 자주 가지 않는 이유를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대다수를 이루었고, 다음으로는 '돈이 없어서'와 '귀찮아서'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커플이 많아서', '귀신이 나올까봐'라는 대답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누구와 영화를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친구들과 본다는 답변이 56%로 제일 많았고, 가족들과 본다는 답변 23%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혼자 본다는 답변이 11%, 이성친구와 본다는 청소년이 8%로 마지막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영화관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GV의 청소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메가박스의 경우엔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인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 청소년들이 할인 혜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금 알고 있음이 42%로 1등이고, 거의 알지 못함이 30%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음이나, 잘 알고 있음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할인 혜택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모르며, 실질적인 활용도 또한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영화관에 직접 가 탐방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8월 1일 일요일, 가까운 영화관에 가 최근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를 보았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청소년층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위의 답변이었던 바빠서, 현대의 청소년들은 주말에도 학원에 가는 등의 일이 많기에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말 이였기에 8천원을 내고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제공되는 할인 혜택은 없었고, 상영시간은 141분으로,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겐 상당히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기에, 영화관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이유인 시간이 없어서, 란 답변이 떠올랐습니다.

문화공연을 이끄는 청소년

윤이준, 이수연 기자



* 인천신현고등학교 김혜림 학생 인터뷰

Q. 직접 공연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A. 저는 뮤지컬 수업을 받으며 학기에 한 번씩 있는 꿈 끼 주간에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 극중에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유학 가는 학생 역을 맡았습니다.

Q. 뮤지컬을 시작한 계기가 있나요?

A. 많은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와 얘기해보던 중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어 뮤지컬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Q.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원래의 제 모습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많은 걸 배워 갈 수 있고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Q.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A. 아니요..... 내년엔 고3이니까 공부에 전념하려고해요.

*인천신현고등학교 조은채 학생 인터뷰

Q. 직접 공연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A. 저는 학교 창체 동아리인 UCC동아리를 하면서 기본적인 콘티를 정하면서 영상 편집을 하는 일을 맡았는데 친구, 후배들과 각종 대회나 학교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처음엔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바뀌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정하지 못하다가 평소 유튜브도 자주 보면서 영상에 대해 관심도 많아지고 직접 영상제작을 하고 싶어서 일단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Q.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지금 저희가 위안부와 관련된 UCC와 학교 홍보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사실 완성작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기대감이 크고 선후배라는 관계임에도 동생들이랑 되게 잘 맞기도 하니까 그냥 즐거워요

Q.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A. 영상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원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이고 이 동아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이유 중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하고 싶어요.

*인천부원중학교 김지원 학생 인터뷰

Q. 직접 공연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A. 부원중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연주회와 정기연주회, 사랑의 음악회 같은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를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처음부터 클라리넷을 배웠는데 혼자만의 연주가 아닌 합주를 해보고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Q. 직접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직접 참여하면서 단원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연주를 위해 연습할 때 조금 힘들었지만 공연이 끝나면 뿌듯했습니다.

Q.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A. 앞으로도 계속 연주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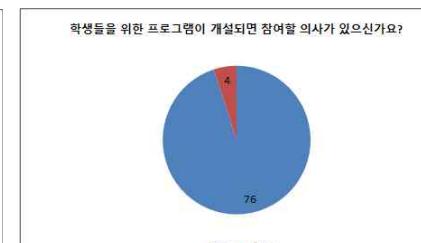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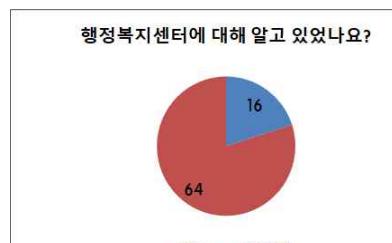
<연수 1동 행정복지센터 외관 사진>

김진솔 기자

행정복지센터란 학생, 노인, 중장년 등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평소에 행정복지센터를 알고 있었던 학생은 16명이고 알지 못했던 학생은 64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및 참여 의사에 대한 그래프>

한 학생은 집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가 있지만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하여 정확히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제공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에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봉사하기 위해 가는 곳=행정복지센터’라는 인식이 생긴 이유 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활동만 많이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DIY나 공예작품, 만들기 활동을 참여하고 싶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공부에 대한 것이고 만들기와 같은 활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을 위함이어서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이 더 확대됨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위 학생의 의견과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위한 여가/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95%가 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이 누리고 싶은 여가/문화 활동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을 위함보다는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가 청소년도 한 명의 주민으로써 여러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학생들의 여가/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확대한다면 청소년들은 여가/문화 활동을 하기 위한 장소를 굳이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많이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더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청소년들은 그동안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여가/문화 활동을 원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의 문화, 이대로 지속되어야 하는가

임채린 기자

인천의 공연 장소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공연들을 제공하고, 인천 시민들의 볼거리 향상 및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계절별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연령대를 고려한 연극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서울이나 대전을 비롯하면 아직까지 대중문화가 활성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공연들은 대부분 어린 아이들만을 초점으로 한 연극들이 주를 다룬 뿐더러, 수입해오는 공연들 또한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먼저 개최된 후 매우 늦게 도입되는 편이며,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작품들만을 가져옵니다. 또한 이런 연령대가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 공연 기간이 2~3일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수입 혹은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 2~3달은 기본으로 공연을 하며, 끝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공연들 또한 대학로에 널려있습니다. 인천의 문화 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공연장의 구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대전과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들과 대공연장을 비롯한 각종 소공연장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이렇다 할 대공연장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뮤지컬이나 연극을 위한 전용 공연장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 다양한 공연들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인천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은 떨어지고, 공연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자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관한 여러 발전 방안들 중 하나는 이러한 공연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기관적인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을 잡고 멀리 나가지 않는 이상, 그것도 시간에 따라 많은 날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문화란, 그리고 영화란

김재민, 유희주 기자

문화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영화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영화는 인간에게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선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예술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문화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화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에게 꽤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로서 깨닫고, 또 성장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하고 있을 것이며, 이 깨달음은 우리가 훗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참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문화로서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문화를 쉽게 접하는 경우가 몇 가지나 될까요? 자발적으로 책을 본다?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보는 경우는 자발적이라기 보단 주변의 강압적인 환경이 이유입니다. 이걸 문화를 즐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영화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보는 많은 영화들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 청소년만의 것이며, 다른 기성세대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아주 다르기에. 우리는 기성세대들과 완전히 독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획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다양성에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천시 자체에서 청소년의 깊은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를 인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주도적인 상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문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문화인 영화에, 교육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전통시장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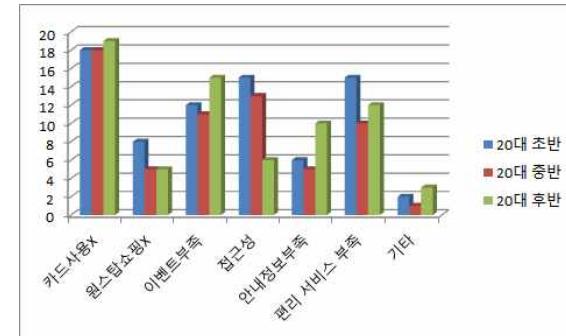
인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민지
초은고등학교 1학년 정해린
해송고등학교 1학년 안은서
해송고등학교 1학년 강지우
해송고등학교 1학년 이예지
상정고등학교 2학년 김경수
인천포스코고등학교 2학년 손가은

시장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사는 장소', '특정 상품이 거래되는 곳', '상품의 수요와 공의 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추상인 기구' 등의 의미가 있다. 즉 물건이 매되는 공개인 장소로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시장은 여전히 상거래 장소로 지역 경제의 중심이지만, 지역 내 소통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거래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화합과 결합을 다져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형할인점, 전문점, 편의점, 온라인 유통점, 홈쇼핑 등과 같은 다양한 유통채널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변하였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되었고, 설 자리조차 잊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여러 기업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쇼핑환경이 소비자의 기대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8년 전통시장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전통시장은 1,550개로 2004년 대비 8.9%가 감소하였다.(중소기업청 (2009) '09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이에 반해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또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대를 대상' 전통시장의 어떠한 점이 불편한가? '>

전통시장 중 하나인 인천의 석바위 시장은 인천 전통시장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시장이다. 석바위 시장은 개항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농가에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가 형성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1970년대 현대적 시장으로서의 시작점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본격적으로 '석바위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1975년이다. 주안 포위 갯골이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커다란 바위산의 이름을 단서 붙여진 석바위 시장은 인천지역 최초의 전통시장이며 전국 최초로 시장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멤버십 포인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친절, 청결 신용으로 고객을 섬기는 기분 좋은 시장과 재미를 선사하는 시장, 고객 관리를 주요 경영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석바위 시장은 인천 2호선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교통편이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이 특별히 더욱 신선하다는 것을 주요 물품으로 삼으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인 인천 전통시장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석바위 시장의 자랑거리이다.





<석바위 시장>

또 다른 시장 중 하나인 모래내 시장도 인천 관광명소 100선 안에 드는 유명한 시장 중 하나이며, 인천에서 부평 깡시장과 함께 2대 시장의 자리를 맡고 있다. 인천 모래내 시장은 1984년 한두 개의 노점으로 시작해 30여 년 가까이 이어온 전통시장이다. 한때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철거 통보까지 내려졌지만 상인들이 힘을 합해 시장을 지켰다. 대로를 중심으로 아파트단지와 빌딩숲 사이에 자리하며 수십 개의 상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모래내 시장은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사는 재미가 커 대형쇼핑몰이 부럽지 않다. 농산물 도소매시장으로 시작해 현재는 의류, 가전, 가구, 그릇, 침구류, 보석, 각종 공산품은 물론 촉·수산물, 식료품, 청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만족할 만한 만물시장이다. 규모도 규모지만 시장을 다녀간 사람은 누구나 먹거리에 감탄한다. 유명한 맛집들이 즐비한데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종류와 맛이 다양한 꼬마김밥과 어묵, 떡볶이 등 분식을 비롯해 방송에 소개되었던 홍어회 무침, 대형 마트에서는 살수 없는 수제 강정 등 먹는 재미가 두 배다. 특히 건강에 좋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해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은 반찬가게도 있다.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만 맛을 내 입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2002년 12월에 대통상상을 받기도 하였다.



<모래내시장>

또 신포시장은 19세기 말 인천항 인근 신포동에 있던 생선 가게와 채소 가게들이 시초가 된 인천 최초의 근대적 상설 시장이다. 신포시장에는 방앗간, 수예점, 양화점, 잡화점, 과일가게 등 다양한 점포 외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가게가 많아 이국적인 풍물을 느낄 수 있다. 1971년 문을 연 신포우리만두도 40년 동안 가게를 지켜오며 쫄면과 만두를 제공한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방앗간의 역사는 70여년이나 됐다. 주인 이종복 씨는 옛날 방식 그대로 매일 떡을 만든다. 이 외에도 형형색색 오색만두, 공갈빵, 낙지호통이, 수제 어묵, 팔죽 등 시장을 걷는 동안 눈과 코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은 이미 내국인들을 넘어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다시게 한다. 미각 한류를 만들어내는 그들 모습이 건강하고 생생하게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시장의 다변화를 꿈꾸며 공연문화도 선보이고 있고,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디자인 스튜디오를 활용한 의류디자인 사업을 시작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신포시장에서 방문객에게 직접 인터뷰를 해보았다.

Q. 신포시장에 자주 오시나요?"

A.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Q. 주로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장 보러 온 김에 아이들 간식도 사가요.

Q. 아이들 간식으로 추천해주세요.

A. 신포시장은 닭강정이 제일 유명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에그타르트도 한 번 먹어 봤는데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봉지를 들어올리며) 지금도 닭강정을 막 사고 나

온 길이에요.

Q. 마지막으로 신포시장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 아무래도 대형마트와 비교해서 한 음식에 대한 가격이나 품질 비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마다 분류가 잘 되어있지 않아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포국제시장>

이렇듯 시설의 노후화, 시장 자체 경영혁신 부재, 다양한 유통채널의 성장,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욕구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급속한 환경 변화로 과거 지역 경제의 주축이었던 전통시장은 점점 침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아케이드(비 가림 시설), 주차장, 고객 휴게 시설 등 편의 시설들을 설치하였고, 화장실과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노후 시설들을 개선했다. 그리고 카드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한다. 테마 거리나 홍보 조형물, 상징 조형물들을 통해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홍보 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내의 거리, 옥상 등을 활용하여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주민이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창작 시설, 공원과 같은 휴식, 여가 공간,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상징물, 깨끗하고 상징적인 문화의 거리나 쉼터 공간 등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공장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고유한 문화나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학교

만수고등학교 2학년 김성준
작전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수민
학익여자고등학교 2학년 손유빈
인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신예리
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지민
인천포스코고등학교 1학년 윤민희
인천부흥고등학교 2학년 한선진

타는 목마름으로

김성준 기자

“오늘 5,6교시 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다.”

그날 우린, 2년 전 봤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용 영상을 또 만났다.

우리의 일상



<전교생 대상 응급처치교육 사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들을 초·중·고 생활을 하며 수도 없이 듣는다. 학교 학생들은 강당에 모두 모여 반별로 한 줄 씩 나란히 앉아 외부에서 온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일반적이다.

똑같은 래퍼토리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똑같은 장소에서 듣는 학생들 대부분은 패자가 된다. 더욱 느리게 움직이는 것만 같은 시곗바늘과의 싸움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패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일반적으로 한다. 죄를 지은 거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불편한 잠을 청하거나, 계모임을 하듯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 앞에서 외부강사는 목이 터져라 준

비해온 PPT를 하나둘씩 넘겨가며 교육을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까? 배움 없는 교육이 될 것 이다. 그저 이름만 남는 교육이 된다. 그럼에도 끗끗이 강당에 모여서 강의를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학생도, 그들 앞에서 강의하는 외부강사도,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는 선생님도 불편한 교육시간들은 매년 마다 찾아온다. 학교폭력 예방·응급처치·성폭력 예방 등등 학생들에게 지루함만 제공하는 교육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살아가면서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때문이다.

반장선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반장선거, 전교 회장 선거, 학급회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다. 물론 이 대답들은 모두 정답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니 반장선거와 같은 활동 등을 통해 선거의 중요성 등을 깨달으며 우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대답의 전부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반장선거를 하고, 매년 마다 전교회장을 뽑는다. 민주시민교육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이처럼 극히 적고,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 분명하게 민주시민에 한 발짝 다가가는 학생들 또한 적다. 매년 마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 학생들의 예술작품이 되어버린 적지 않은 투표용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에겐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학생들을 강당에 집합시켜서 외부강사 모셔다 놓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듣는 교육을 실시하자!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었던 교육처럼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중히 사양한다.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지식만을 전달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뒀던 그동안의 교육 대신 ‘능동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피워나지 못한 풀뿌리민주주의를 피우는 주체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에 걸 맞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 바르게 설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 왔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소통하며 민주시민으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춰나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천’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인천은 올해 인천시교육청에 새롭게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는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의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천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펼쳐나갈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관심과 기대를 갖고,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

김수민 기자

교육의 과정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온정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을 존중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과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후 사회의 인권의식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실제 학생인권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명시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체벌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명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교육과학부는 이렇게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이유 때문에 체벌금지를 실시한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교실붕괴 현상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오히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파악하기에 이른다.

이후 2011년 초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부 장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하는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직접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면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체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선언하지만 당시의 교육과학부 장관의 발언과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간접체벌’은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입법취지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의 과정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과정, 그것도 긍정적인 상호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체벌’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흥미로운 점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조국(2013)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OECD 소속 국가에서는 학교, 특히 공립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흐름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체벌금지시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9조 제1항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를 금지한다. 이는 ‘유럽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또한 마찬가지이다. 둘째, ‘2016 교육여론조사’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훈육을 위해 교육별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75.7%인 1,513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국민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훈육을 위해 교육별, 곧 ‘간접체벌’ 정도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생들의 인성 및 도덕성 수준에 대하여 매우 낫다고 응답한 의견과 연결지어 볼 수 있겠다.셋째, ‘2016년 교육여론조사’에서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역시 전체의 22.1%만이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50.2%의 응답자들이 ‘보통’을, 그리고 27.8%의 응답자는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학부모의 응답 비율만 별도로 추출하였을 때도 거의 동일하다.

몇 가지 매우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도 교사가 학생을 구타하는 사건,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육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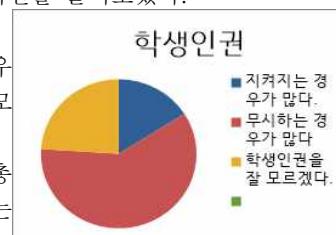
손유빈 기자

요즘, 여학생의 교복 와이셔츠가 어린이 티셔츠의 사이즈와 비슷하다는 기사나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을 성희롱을 한다던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다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 즉 학생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학생 인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먼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으로는 학생 인권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인권 잘 모르겠다 이 3가지로 나누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지켜지는 경우는 학생 총 50명 중 지켜지는 경우는 8명, 무시하는 경우는



30명,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학생들은 12명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학생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생 인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① 학익여자고등학교 2학년 과학융합반 이효은 학생

Q. 요즘, 학교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공부에 관련된 압박감 및 반복되는 학교 생활에 지쳐가는 마음이 학교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학생이라는 신분이 언제 가장 힘드신가요?

A. 학생이라는 이유로 만들어내는 학칙에 들어가 생활해야 하는 부분들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만드는 제한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Q. 혹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A. 학생 인권 조례라는 단어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10년 중 처음 듣는 말입니다.

Q. 그럼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A.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느낄 때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등급을 매기는 것과 학교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어야하며 담요는 덮으면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들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만약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A. 압박감들이 많이 사라지고 학교생활이 매우 평온할 것 같습니다. 상상이 안돼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② 학익여자고등학교 2학년 과학 융합반 이수연 학생

Q. 요즘, 학교에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학교 교칙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하고, 계속 성적으로 차별 같은 것을 받는 것이 힘듭니다.

Q. 그럼 학생이라는 신분이 언제 가장 힘드신가요?

A.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만 해야 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Q.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A. 하하 그런 게 있었나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Q. 그럼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시나요?

A. 학교 내에서 개인의 자유나 취향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머리염색 등 여러 가지입니다.

Q. 만약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바뀔까요?

A. 학교 오는게 조금 즐거워 질 것 같습니다.

위 두 학생의 인터뷰처럼 학생들은 학생 인권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고, 인권

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 언론이나, 사람들이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도 평범한 인간처럼 인권을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기회나, 학교 자체에서 학생 인권을 지킬 수 있고, 침해받지 않게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여러 학생들은 입시나, 학업 스트레스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을 학교에서까지 인권을 침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점을 보아서 학교에서 만큼은 더 즐겁고, 학교오는 것이 더 즐겁게 하고, 인권까지 침해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학교 생활, 학생 인권이 되지 않을까.

교복 자율화 찬성과 반대, 당신의 생각은?

신예리 기자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편리한 복장을 위해 '교복 자율화'정책을 언급하였다.

'교복 자율화'정책은 1982년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두발자유화를 실시하면서 더 불어 교복자율화 조치를 발표하여 1년간 시범기간을 거쳐 1983년 3월 신학기부터 중·고등학교 교복자율화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로써 3년여의 시행착오 끝에 1985년 자유복과 함께 교복도 허용하는 보완조치가 1986년부터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권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마련이다. 현재 문정부는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요소로 꼽히는 교복을 자율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포문을 열었다.

현 시점에서 교복 자율화에 대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인천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Q.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교복자율화를 시행한다는 정책이 도입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다닐 수 있게 되어 무지 기쁩니다. 하지만 교복이 자율화가 되어도 학교의 교칙에 따르면 학생이라는 본분은 교복을 입는 것이 의무이고, 교복은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의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의 무언의 암박도 생겨날 것이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불상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교복을 대신해 '생활복'이라는 자칭, 대체 교복이 늘어나고 있어 교복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교복을 입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교복 자율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무궁무진하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교복자율화는 학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중대하는 정책이라고 예상되지만, 모순적

인 생각을 지닌 학생들도 존재하였다.

나는 인천여고 학생회 선도부로서 매일 아침 교문에서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을 잡는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지 않았다는 자책감보다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 별점이라 무시해도 괜찮다며 합리화 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했다. 과연, 교복자율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 정책이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끼칠지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복 자율화, 당신의 생각은?

윤민희 기자

최근, 학생들의 인권 의식에 성장함에 따라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율화, 학생 체별 금지 등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두발 자유화는 권고 사항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고 학생 체별 금지 규정을 만들어 합당한 이유 일 경우에만 합당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훈계하는 방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복 자율화에 대한 문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교복 자율화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다가 시행 3년 후인 1986년 2학기 때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자유복을 입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채택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학생다움'을 추구하여 일탈을 방지하며 일체감을 통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교복(정복)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천포스코고등학교는 월요일에만 정복을 입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의 생활복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포스코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교복 질이 사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너무 비싸다. 그리고 교복은 보냉과 보온에 용이하지 못하다."라며 교복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교육자율화에 대해서는 "월요일에는 정복이 불편해 생활복으로 갈아입는데 사복을 입으면 정말 편안하게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 같다."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또한 교복의 취지는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교복을 전부 구입해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편리성 증폭을 위해서 교복 자율화의 재도입은 시급하다.

교복자율화 실시 학생인권 쟁겨…

한선진 기자

요즘 중고등학교 교복 문제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얇은 스타킹과 치마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여학생들이 자신도 청바지에 내복을 따뜻하게 껴입고 등교하고 싶다며 가장 먼저 동요했다. 급기야 한 학부모가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교복 폐지에 관한 안건을 냈고, 논쟁은 급속도로 뜨거워졌다. 몇몇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불만

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경직된 교복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 송광중학교는 활동성이 높고 세탁이 편리한 생활복을 하복으로 채택해 남녀 구분 없이 입도록 했고, 서울 한가람고에선 봄가을엔 헐렁한 후드티를, 여름에는 반바지와 면티셔츠를 교복으로 해 호응을 얻고 있다. 입시 스트레스에 숨 막히는 학생들이 교복까지 불편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되겠는가. 이참에 교복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 남녀 구분을 없애는 '성 중립 교복'도 고려해볼 일이다.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서는 교복을 폐지하는 대신 교복과 자율복을 병행하며 착용에 대한 선택을 학생 스스로에게 맡기기로 했다.

석립중학교는 지난 19일 교복 복장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나친 규정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청회는 교복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학생회의 안건 상정으로, 교장,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사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방식으로 열렸다.

교복 착용을 춘추복, 하복, 체육복 등 교복 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 착용을 허용하고, 겨울철 외투는 교복 재킷을 벗고 외투를 바로 입게 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학생회는 개정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렇듯 교복자율화는 학생들에게 민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도 쟁겨주었다.

교복 이대로 팬찮을까?

신지민 기자

교복자율화란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고 자유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교복의 자율화 조치이다. 국내 최초의 교복은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 여학생들의 다홍색 치마저고리 복장이었다. 그 후 1890년대 배재학당 남학생들의 당복이 생겼고 뒤이어 남학생 교복은 짧은 머리에 한복 바지저고리와 검정 두루마기로 통일된 형태가 되었다. 한국의 첫 교복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일본식 교복을 입던 시기였다. 일본식 교복이 학생들을 억압하는 강제적인 규율의 상징이고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는 비판이 그 이유였다. 1983년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자유복 등교가 3년간 시행되었다. 하지만 사복 착용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사복 구입 비용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결국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복을 선택하고 있다.

이 후 최근에 다시 교복자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복이 학생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교복이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불만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교복 바지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착상 치마를 입어야 하고 심지어는 와이셔츠 속에 입는 옷의 색까지 점검받아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7세용 아동복과 키 160cm 여학생용으로 나온 교복의 크기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현재 교복은 현대판 코르셋이라고 불리고 있다.

실제로 인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모양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교복은 학생들이 입는 옷인데 왜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며 "교복점에서 살 때부터 치마가 짧고 와이셔츠는 꽉 끼게 나온다"라고 교복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교복은 누구를 위한 옷이며 무슨 의도로 제작된 옷일까? 현재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만큼 교복자율화에 대하여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불쾌한 찰거머리, 성차별

강남미디어영상고등학교 2학년 남가연
강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백연서
계양고등학교 1학년 유환희
연평고등학교 1학년 노금구
인천청라고등학교 1학년 권동현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보경
승덕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유진
도림고등학교 1학년 유광열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그런데 청소년이 겪는 성차별도 있을까?

난 학교에서 자주 겪는데

불쾌한 찰거머리,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 목격한 적은 있어
성차별

겪어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청소년 사이에도 성차별이 있다고요?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성차별 언어가 최근에는 성 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에 대한 언어폭력으로 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차별은 성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집단에서 평등한 지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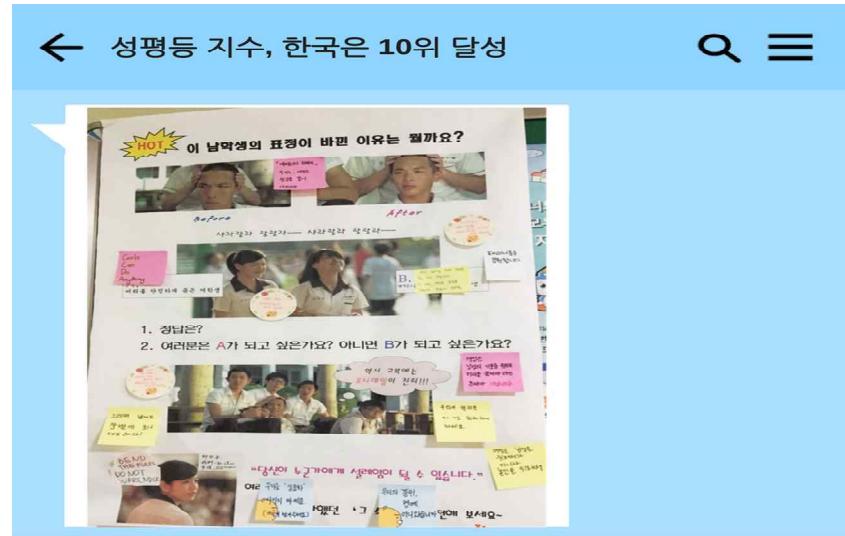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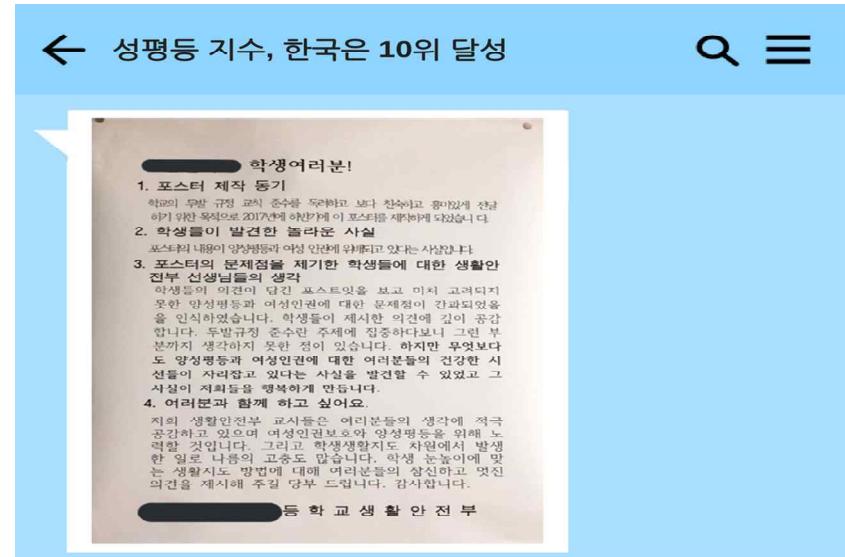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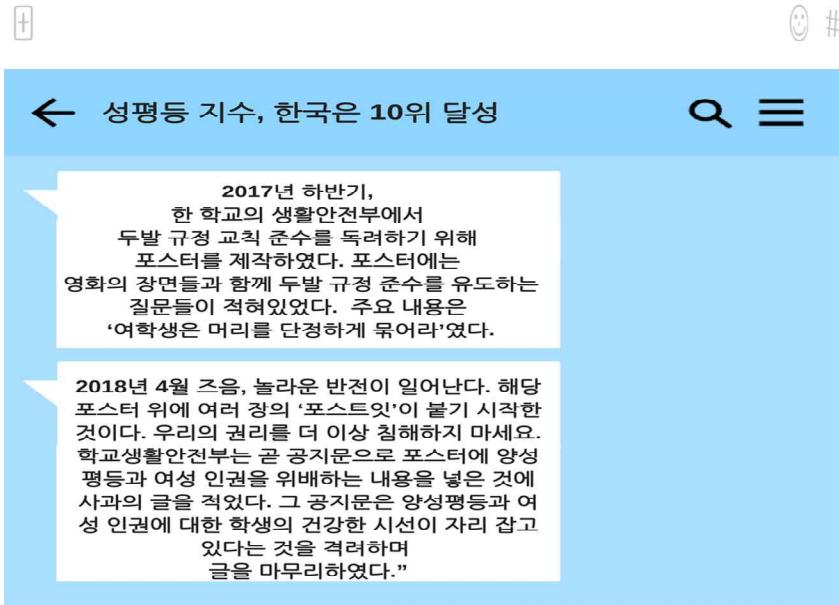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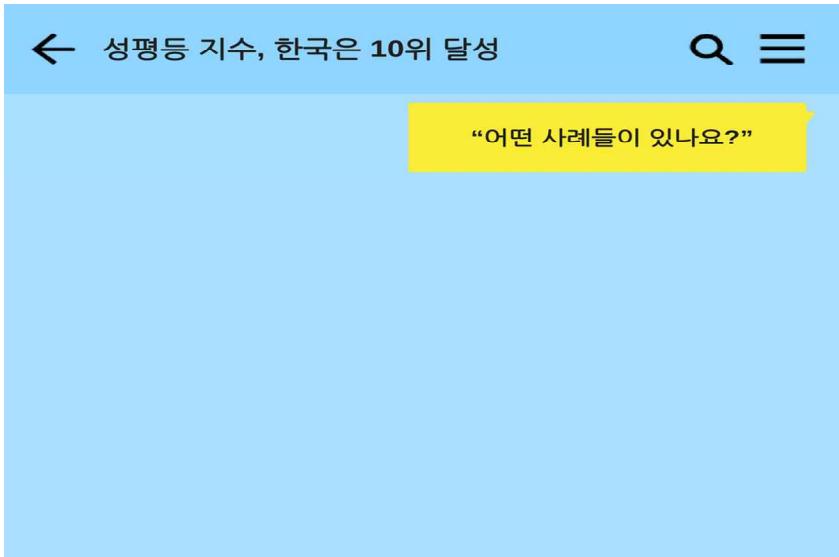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가부장제, 기성세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 인터넷 커뮤니티로 조장된 성 불평등이 청소년에게 습득되면서 성차별도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김 보경 기자

혐오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니 교육자로서 신중하게 중립을 지켰으면 합니다.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성에 대한 혐오, 비하적 표현을 양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기연 기자

굳이 여자와 남자끼리 편을 갈라서 서로 좋지 않은 의도로 호칭을 만들어서 부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치녀, 한남(한국남자)등의 호칭들을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행어처럼 자연스럽게 쓰는 이들은 남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김치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여학생과 남학생이 듣는 단골 대사

- 공부 열심히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야지
-> 여성은 좋은 남편을 만나야한다고 인식
- 여자애가 기 쎄면 남자들한테 인기 없어
-> 여자는 기가 쎄면 안된다는 고정관념
- 너는 몸매가 좋아서 시길 잘 가겠다.
- > 몸매가 좋아야 시길을 잘 간다고 생각
- 좋은 대학 가면 미래 남편 직업이 바뀐다.
-> 남편이 바깥일을 해야한다는 생각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익명 학생 10명 조사의 결과 및 사례 진술에 대한 거부 :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모두 성차별 사례를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다며 회피했다. 성차별 사례로는 남학생 교복에 비해 여학생 교복은 사이즈가 작으며,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를 입을 것을 강요 혹은 강조한 것이 있음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노 금구 기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이 만연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큰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성차별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를 말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을 당한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 유진 기자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부터 되돌아본다면 많은 성차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면 성차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노 금구 기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이 만연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큰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차별은 찰거미처럼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권 국가'라면, 가장 큰 문제점은 성차별은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저한다는 것보다는, 성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기 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성차별은 예외가 없습니다.

김 유진 우리 청소년 주위에도 성차별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부터 되돌아본다면 많은 성차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면 성차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성평등 지수, 한국은 10위 달성

노 금구 기자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성차별이 만연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큰 차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성차별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를 말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을 당한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여러분 주위에도 성차별이 보이십니까?**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 유진 기자

우리가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부터 되돌아본다면 많은 성차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면 성차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선 여행, 시발역에서 종착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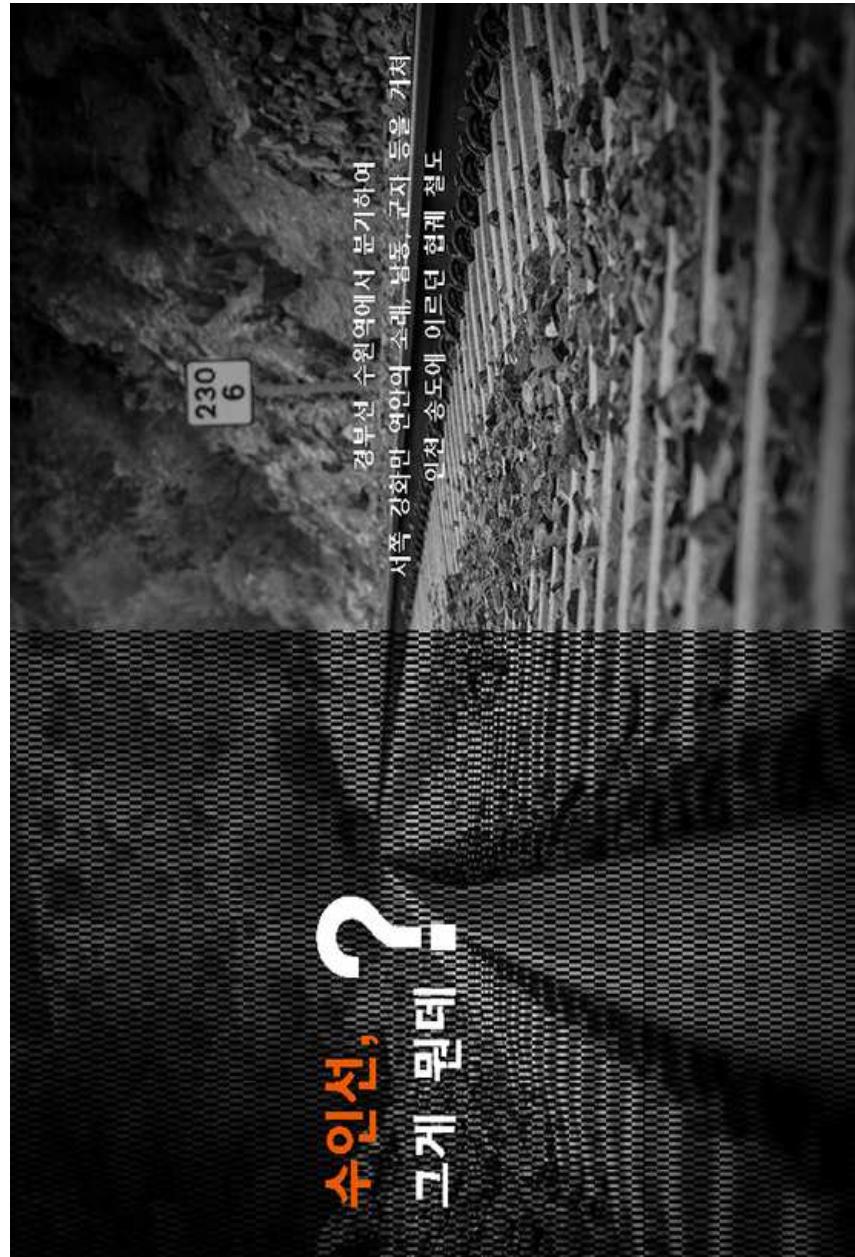
모둠 이름: **선팩트**

모둠원: **조은희 김윤하 윤성도 오시연 김원희 이승우 정은주 윤지민**
인천여고 해송고 도원고 국제고 해송고 연송고 중앙여상 해송고

수인선, 그게 뭔데?

230
6

경부선 수원역에서 문기하여
서쪽 강화만 연안의 소래·남동·교자 등을 거쳐
인천 송도에 이르던 협궤 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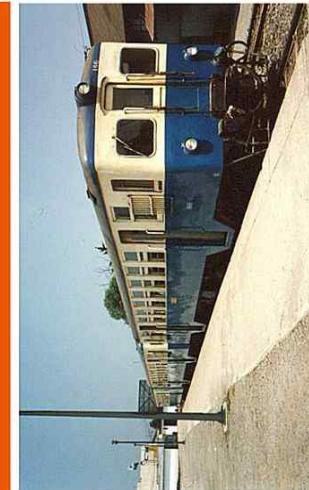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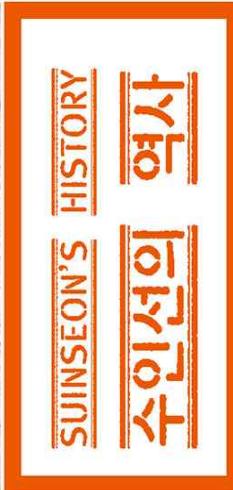
01 노선의 변화

수원의 '수'와 인천의 '인'을 따와 이름을 지은 수인선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수운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 인천역을 잇던 철도 노선이다.

수인선은 1937년에 철도 회사인 조선 경동철도가 농산물, 소금과 어물을 수탈하는 목과, 인천의 상권을 경기내륙과 강원 영서남 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철도를 지도 65채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 무임승차를 하여 하루 매표 수입은 겨우 6~7만 원 정도로 하루 열차 연료비인 1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연간 20억 원의 적자로 인해 1996년 전 구간의 영업이 중지되었다가 2004년 복선 전철화 사업을 개통 당시 수원-고색-오목-어천-야목-빈정-일리-송도-원곡-신길-군자-소래-논현-남동-문화-송도-인천형의 노선을 운행하였으나, 1996년 운행 0년 후 2004년 12월 28일에 복선 철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2년에는 오이도-송도 2016 송도-인천구간이 정전적으로 개통되었다.

도-인천 구간이 정전적으로 개통되었다.

수인선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사철철도 국유화 정책에 따라 교통부 철도국 소유로 변경되었고, 1980년대 증기기관차에서 가와사키 디젤 전동차로 바꾸었으나 버스나 택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



#윤성도 기자
#김은희 기자

02 수인선의

번성, 그리고 물락

수인선의 개업 이유와 사회적 변화를 통한 물락, 재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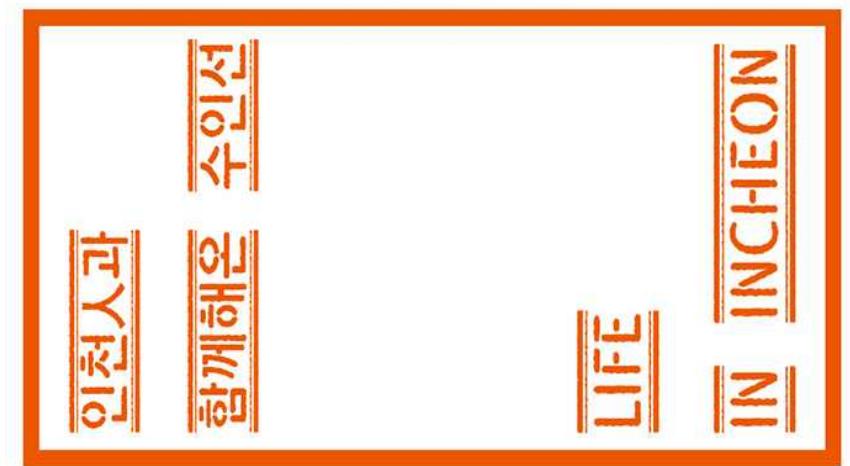
출들더러 하루 평균 3백여 명 수준에 그치는 데다 그마저도 무임승차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표 수입은 하루에 겨우 6~7만 원 정도로 하루 연차 연료비 인 15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연간 수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미 철도청은 만성 적자운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인선의 폐선을 고려해 왔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무산된다가 결국 1990년대에 철도청이 공사 전환의 계획이 확정되면 서부터 수인선 힘차 철도의 폐선과 관련된 구제적인 방안이 시행된다. 수인선의 원전폐선은 통과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수밖에 없었고, 수인선 노선 자체만 보면 살피고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원전폐선이 아닌 기존 철도 폐선 후 표준궤 복선으로 재부설하여 수도권 전철로 운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북선전철화를 이유로 수인선은 무기한으로 영업중지에 들어갔지만, 예산 부족과 IMF를 겪으면서 전철화 공사는 티스푼 공사를 번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2년 6월에 오이도역부터 송도역까지 전철화 공사를 완료하여 수도권 전철 수인선 이런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송도역부터 인천역까지는 2016년 2월 27일에 개통하였다. 수원역까지의 완전 개통은 2019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인선 구간은 수도권 전철 4호선과 공유할 예정이고 협재 수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분당선과 직결할 예정이다.

#01 승우 기자

과거 수인선은 혈궤철도였다. 혈궤란 레일 사이의 거리가 표준궤인 1,435mm 보다 작은 폭으로 봉동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청약국에 의해 혈궤로 철도를 짓게 된다. 그렇다. 최초의 수인선은 일제의 식량 수탈 목적으로 지어졌다. 수인선은 주로 경기도 해안지방에서 만들어진 소금과 더불어 경기 동부지방에서 경기 동부지방에서 생산되는 국물을 깊은 혈궤노선이었던 수려선과 연계하여 인천항으로 수송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했다.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철도청 산하의 국철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허물수송보다는 여객수송의 비중이 커졌다. 1960년대 이후 경제기밀정책이 본격화되고 지동철도로 개통되는 등 교통수단이 다양화되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용객이 적지 않던 노선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도로교통의 발달로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기존 인천 시설이 업그레이드 난이도를 비롯해 인천 도심 통과 구간들이 연일 아파면서 인천과 수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일부 잃게 되어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간척사업 등으로 경기도 내 해안들이 매립되면서 서해안 평원들도 하나 틈새 사라져 주 이용객이던 어패류를 운반하던 어민들이 차량을 갖추었고, 청소를 도시에 내다 파는 무너자와 풀학병 그리고 주말 나들이 관광객들만이 이용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때부터는 이용객 수치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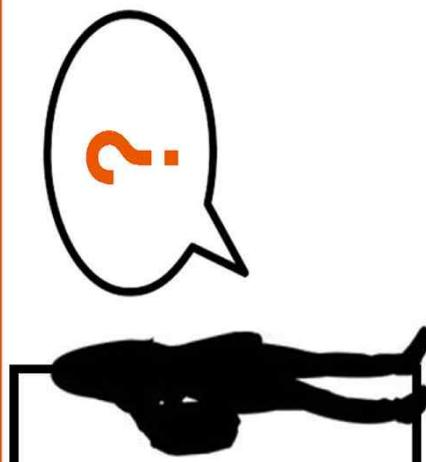
A night photograph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tation entrance. The station is a modern structure with a curved glass facade and a prominent white illuminated sign that reads "인천국제공항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tation). The sky is dark, and the station is brightly lit from within and by its own exterior 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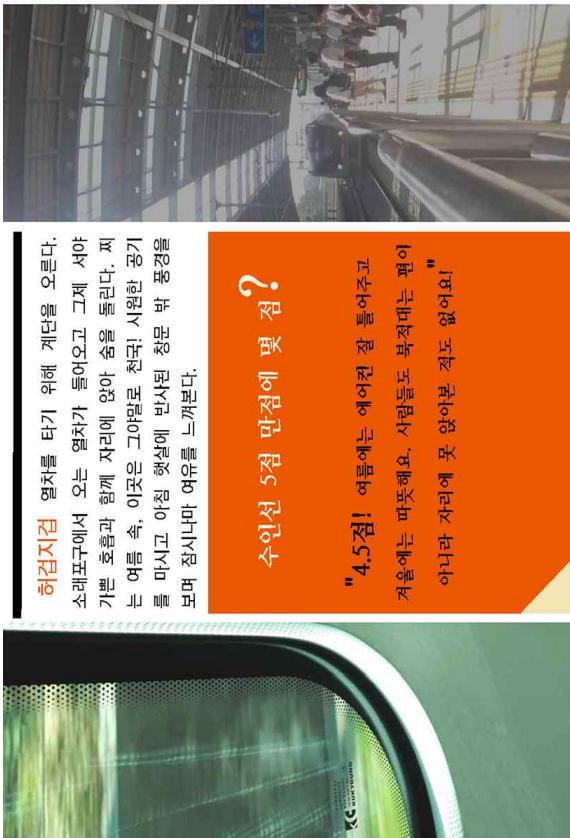
02 현지 역사에 노는

원인자 역까지

#interview #report #주은희 #기자

연수중학교에 재학 중인 유○○ 학생은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수인선”을 탄다. 왜 일통학을 하는 걸까? 유○○ 학생은 이사로 인해 남동구의 논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논현역에 0 110을 오가는 연천가는 토한 스다이 토 이다.”





수인선 5점 만점에 몇 점?

"4.5점! 예쁨에는 예어전 잘 틀어주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사람들도 북적대는 편이
아니라 자리에 못 앉아본 적도 없어요!"

AM 7:50
열차 도착 2분전

아침의 지하철이나 열차는 지옥철이 아닌가. 하지만 의외의 답변이었다. 실제로 수인선은 사람이 가장 많다는 출퇴근 시간임에 불구하고쾌적한 환경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여름의 더위에도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었다.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통근·통학길!?

PM 4:26
열차 런승 실패

유○○ 학생은 아침마다 7시 52분 열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계단을 뛰어오른다. 또 혹시라도 방과후 청소나 동아리 활동이 늦어져 4시 26분 열차를 놓치면 벤치에 앉아 떠본한 시간을 보내야 만 한다. 특히 연착시간으로 열차가 늦어지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아리가 있는 바람에 열차를 놓치고 말았다.
"아, 핸드폰이나 해야겠다."

별점 0.5점이 부족한 이유는?
"지하철 놓치면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해요. 기분 연착되기도 해서... 시간 잘 맞추면 되긴 해도 놓치면 많이 기다려야 하니까 짜증이 나죠."

장간 눈을 블아려는데, "이번 역은 원인체, 원인 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원쪽입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열차는 원인자역임을 알리고 더욱 열기와 함께 열차 밖으로 빠져나온다. 원승역인 원인체역은 약점 시간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투덜대며 역구 벤치에 앉아 늦는 친구를 기다린다. 친구를 만나 원인체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걸어간다. "아, 너는 열차 타고 학교 오면서 여기 사는 나보다 빨리 도착하나?"

아가! 막았던 떡볶이 가게를 지나쳐 수인선을 이용해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린다. "엄마, 어디에요? 떡볶이?" 가끔씩 엄마와 함께 집에 갈때면 항상 논현역 앞에서 만난다고 한다. 논현역 입구에서부터 걸어나오는 엄마를 만나 집으로 흥했다. 기자는 녹운에 함께 논현역 거리의 아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수인선 자주 이용하세요?
"네! 엄마 회사도 수인선 주변에
있거든요. 아. 그리고 서울 갈 때도
자주 이용하세요."

유○○ 학생의 어머니는 월곶역 주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월곶역부터 인천 논현역까지는 8분 정도가 걸린다. 어머니께서는 통근 시간에 대해 크게 인식하며 평소 일이 아무리 늦게 끝나더라도 12시까지 운행하는 수인선 턱분에 금방 집에 도착하신다고 한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교통을 책임지는 수인선에게 웬지도를 고마움을 느꼈다.

PM 11:23
학원이 끝나고



논현역 주변 인기 땅아요?

"땅죠! 제 동네 친구들은 다 여기서 놀아요. 새로 건물도 많이 생겼고 일단 맛집! 진짜 많아요. 학원이 많아서 그런가? 4층짜리 다이소도 있어요. 가로세로 큰 쇼핑몰도 있고요."



PM 4:47
두 번째 열차 도착

논현역은 유○○ 학생뿐만 아니라 놀기 좋아하는 기자가 자주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 10대들이 놀기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든다. 10대들이 좋아하는 학작물 가게들도 많을뿐더러 맛집이라 불리는 체인점들이 증가 곳곳에 있다. 최근에는 영희관인 메가박스가 들어서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약속 장소가 되었다. 이 외에도 학원들이 많아 들어서 있어 하교 후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운다.

#AM 12:04
12시가 넘도록 수인선은 달린다

FUTURE 미래 SUINSEON'S 수인선의



어떻게 01 발전할까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더욱 편리한 이동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역~송도역~오이도역 구간을 운행 중인 수인선이 내년 말 완전 개통으로 한대앞역~수인역 구간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수인선 구간 내에는 1호선(인천, 수원), 4호선(오이도, 강화)과 같은 회승역이 존재하여 때문에 지하철만으로 편리하게 수인선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 수인선은 수원역에서 분당선과 직결되어 수인분당선으로 운행할 가능성이 크다. 직결 시설이 완료되면 인천 시민들은 열차를 갈아타지 않고 서둘러 경기 남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하운석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는 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수인선 청취여 험하는 이어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월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취여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하였다. 하지만 7월 인사간담회에서 내정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예산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이 들어 어려울 것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하였다.

유정철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던 인천발 KTX 사업은 인천시와 국토부가 8월 중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월부터 2년간 실시 설계에着手할 예정이다. 출발역은 추가 선로를 설치 할 여유가 있는 송도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송도역과 초지역, 어천역 3개의 역이 만들어진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을 포함한 인근 수도권 시민 65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수인선은 최대 23분 정도의 긴 배차 간격과 열차 대신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이동이 편리한 시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허름한 수인선은 시민에게 불편하고

#Vision#Suinseon #전은주 기자



수인선은 열기자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무릎이 뒹을 정도로 좁은 2m 정도의 공간이었다. 비록 즐고 덜컹거리 더 풍만한 열기였지만 수인선은 5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처럼 시간에는 학생들의 톡톡 열기와 소래포구 청각 상인의 빨이 되어 준 지역 서민들의 삶이 고스로히 담겨 있는 고운 열기였다.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열기자 꽉 차 어여쁜 모습을 살피던 것 같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것 같았던 것이다. 그들이 고단한 삶을 살피던 것 같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달라진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안선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먼저, 평소 수안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었거나 질문에 16명의 인천해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12명이 '내라고 답했고 4명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열넷 보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안선에 대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내라고 대답한 학생들 중에서 실제 통증을 하거나 대답한 학생들' 때문에 수안선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단지 '수안선이라는 말을 어서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수인선은 어떤 학교인가요? 수인선은 어떤 학교인가요? 수인선은 어떤 학교인가요?

02 10/2 토요일

“혹시 평소 수인선에 대해 들이분적이 있거나 알고 있었나요?” 인천해송고 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16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인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인선은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 인천역을 잇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노선이다. 과거 수원역과 남인천역을 잇던 수인선은 인천에서 출발해 시흥, 안산, 회성, 시흥을 거쳐 수원에서 멈쳤고 철로 폭은 762mm로 표준궤보다 절반 정도 폭이 좁은 철도 선로 즉, 험궤 철도였다. 열핏 보면 다른 철도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철도처럼 보이지만, 수인선은 1937년 8월에 개통되어 1995년 12월 31일 열차 운행이 중단된, 58년 동안 지역민들의 삶을 지켜보며 함께 달려온 깊은 추억과 역사가 담긴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음으로, 수인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알고 있었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질문을 해보았다. '그렇다면 혹시 수인선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소금 등의 물품을 인천으로 수송하게 운반할 수송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12명의 학생들 중 3명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나머지 9명의 학생들은 그 정도까지 수인선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라며 물었다고 답했다. 또한, 첫 번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수인선이 아침에는 학생들의 통학열차로 이용되고 낮에는 소래포구 첫갈 상인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이를 통해 수인선이 영천과 포구라는 우리나라 삶의 문화를 살보여주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12명의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수인선의 이러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즉, 12명 모두가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이러한 정보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이었다.

물론 이러한 수인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6명이라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결과를 내렸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1931년에서 1995년 사이에 수인선을 이용했던 현제의 어른들보다 현재 우리들, 즉 학생들의 수인선에 대한 인식 수

준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인선이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협궤열차라는 점, 과거 수인선을 이용했던 서민들의 삶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준다는 점,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가 수물을 위해 만든 인천항으로의 물품 수송로였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수인선은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은 추억, 가치를 인은 채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러한 수인선에 대해 우리들은 주, 학생들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조사해보며 수인선의 가치를 깨닫어야 할 것이다. 수인선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많은 추억과 역사가 담겨 있는 수인선을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향후로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고를 친금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수인선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개인에게는 추억 상자, 사회로서는 문회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를 갖는 수인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주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수인선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수인선을 타고 소래포구에 다녀오면 어떨까? 소래포구 첫갈 상인들이 출퇴근하며 이용하던 수인선을 타고 그들의 생활모습을 떠올려보며 소래포구로 떠나보자.

#AWARENESS
#IMPROVE
#윤지민 기자

수인선 여행, 종착역 도착 #END

편집/모출장: 조희희 기자
모출원: 이승호 기자
김현희 기자
홍성도 기자
김윤하 기자
오지현 기자
정은주 기자
윤지민 기자
제작일: 2018.08.31
사진 출처: 출영 또는 구글
자료 출처: 통계청, 한국철도공사, 출판이자
클립 출처: RicCloudFreeFront



#최재토론을 위해 모인 팩트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